금수강산

4

주체110(2021)
루계 제380호 월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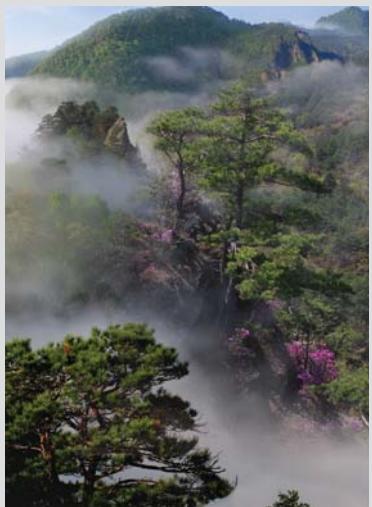
 ISSN 1727—9062

차 례

http://www.korean-books.com.kp

표지: 그리움의 마음을 담아

태양절에 즈음하여 길림육문중학교에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동상에 진정할 꽃바구니마다에 재중동포들이 그리움의 마음을 담아가고있다.

본사기자 김영호

뒤표지: 칠보산 해칠보의 아침

본사기자 김춘혁

주체78(1989)년 8월 창간

주　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평양시 서성구역 서천동

전자우편: flph@star-co.net.kp

편　집: 최은혁

ㄱ-218043

특별소식

5만세대 살림집건설로 우리 수도를 다시한번 웅장하게 변모시키자 · · · · · · · 2

계획편집

한집안식솔로 여기시고 · · · · · · · · · · · 8

수 기

친어버이심정으로 · · · · · · · · · · · · · · 12

일 화

만족이란 있을수 없다 · · · · · · · · · · · 13

크기와 무게로 잴수 없는 기념돌 · · · · · · 14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중에서

새 무장력의 탄생 · · · · · · · · · · · · · 16

승리의 전통은 세대를 이어 · · · · · · · · · · 17

고국의 모습

오늘도 맥박치는 천리마의 정신 · · · · · · · 18

과학기술로 담보 · · · · · · · · · · · · · · · · 21

금속공업부문에서 큰걸음 · · · · · · · · · · 22

정비전략, 보강전략으로 · · · · · · · · · · · 23

과일가공품이 늘어난다 · · · · · · · · · · · 24

기술개건으로 생산능력 확대 · · · · · · · · · 26

세공술로 이름난 공장 · · · · · · · · · · · · 28

부모형제가 되여 · · · · · · · · · · · · · · · 30

모녀우표애호가 · · · · · · · · · · · · · · · 32

대 담

오염이 없는 언어 · · · · · · · · · · · · · 34

조국의 품에 안겨

버꽃을 사랑하는 로박사 · · · · · · · · · 35

살림집을 통해 보는 사회제도 · · · · · · · · 36

해외동포

잊지 못할 길림사람들 · · · · · · · · · · · · 40

이역에서 울려나오는 두 목소리 · · · · · · · 42

력사, 민속

사 화

화약무기제작과 진포해전 · · · · · · · · · 43

4월의 절기와 민속 · · · · · · · · · · · · · 44

지명유래

평안북도의 일부 지명들 (1) · · · · · · · 45

명승-울림폭포 · · · · · · · · · · · · · · · 46

강원도의 력사유적을 찾아서 (11) · · · · · · 47

조국의 각 도 특산물들 (25) · · · · · · · · 48

민족의 향기

약초의 왕-개성고려인삼 · · · · · · · · · 49

력사인물

풍경화가 리인문 · · · · · · · · · · · · · 52

유모아

고지식한 사람 · · · · · · · · · · · · · · · · 44

상 식

활쏘기 · 45

대동문 · 48

5만세대 살림집건설로 우리 수도를 다시한번 웅장하게 변모시키자

평양시 1만세대 살림집건설착공식에서 하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연설

주체110(2021)년 3월 23일

영예로운 수도건설에 떨쳐나선 전체 건설자들과 인민군장병들!

오늘 우리는 우리 수도건설력사에 또 하나의 뜻깊은 리정표를 새기는 영광을 지니게 됩니다.

올해초에 있은 당 제8차대회와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2차전원회의는 5개년계획기간에 전국적으로 살림집건설을 힘있게 내밀면서 우리 수도에만도 5만세대의 살림집을 일떠세우며 이를 위해 매해 1만세대씩 건설할것을 결정하였습니다.

당대회가 결정한 무겁고도 거창한 투쟁과업들중에서도 가장 보람있고 영광스러운 혁명사업이 오늘로써 드디여 본격적인 시발을 떼게 되였습니다.

위대한 우리 국가의 수도 평양에 5만세대의 현대적인 살림집을 건설하는것은 수도시민들에게 보다 안정되고 문명한 생활조건을 제공해주기 위하여 우리 당이 크게 벼르고 준비해온 숙원사업입니다.

당과 정부는 수도의 살림집부족세대수를 장악하고 그 해결대책을 깊이 연구하였으며 이 사업은 우리 당과 정부에 있어서 최중대과업으로 간주되였습니다.

당중앙위원회는 이 막중한 과제를 어떤 불리한 조건과 환경에서도,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감당해야 할 영예로운 혁명과업으로 기꺼이 받아들이고 인민대중제일주의를 더욱 철저히 구현하는 원칙에서 건축발전구상과 건설정책을 재확정하였습니다.

건설방향과 순차를 다시 정하고 국가건설총예산의 많은 몫이 살림집건설에 지출되도록 하였으며 그 실행을 위한 작전과 준비사업을 한데 기초하여 당 제8차대회에서 5만세대 살림집건설을 정책화한것입니다.

우리 당과 국가가 펼치는 대규모의 살림집건설작전은 어떤 경제적리득을 위한것이 아니라 철두철미 국가의 재부와 근로대중의 창조적로동의 결과가 고스란히 근로자들자신의 복리로 되게 하는 숭고한 사업입니다.

오늘을 출발점으로 하여 앞으로 당창건 80돐이 되는 2025년까지 해마다 1만세대씩 5만세

대의 살림집을 새로 지으면 이미 건설중에 있는 1만 6, 000여세대의 살림집까지 포함하여 거의 7만세대의 살림집이 생겨나 수도시민들의 살림집문제가 철저히 해결될것입니다.

수도에 살림집을 대대적으로 통이 크게 건설하는것은 중첩된 난관을 맞받아 기세차게 전진하는 우리 국가, 우리 인민의 불가항력적인 투쟁기상을 떨치는데서도 큰 의의가 있습니다.

다 아는바이지만 평양시에 올해 1만세대의 살림집을 건설하는것은 매우 힘들게 락착되였습니다.

사실 도전과 장애가 그 어느때보다 혹심한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이런 대규모건설을 하는것 자체가 상상밖의 엄청난 일이 아닐수 없습니다.

올해의 1만세대 살림집건설은 5년전 려명거리건설을 시작할 때와도 완전히 다른 형편에서 진행되며 더우기는 그 몇배나 되는 작업량을 단시일내에 해제껴야 하는 방대한 공사입니다.

그러나 우리 당은 1만세대 살림집건설이 수도시민들의 생활과 직결되여있고 당대회의 결정을 드팀없이 관철하기 위한 첫해의 중대한 정치적사업이므로 무조건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에게는 가장 어려운 시기에 가장 거창하고 훌륭한 대건설을 벌린다는 뿌듯한 자긍심과 배짱이 있으며 이 아름찬 건설과제를 얼마든지 실행할수 있는 자신심과 경험, 밑천이 있습니다.

아직은 건축형성안에서나 볼수 있는 특색있는 고층, 초고층살림집들이 이해말에 가서는 이 송신, 송화지구를 꽉 채우게 되면 우리 국가의 잠재력과 우리 인민의 창조력이 다시한번 크게 과시될것입니다.

이 과정에 우리의 주체건축은 또 한단계 비약하고 발전하게 될것이며 자기 식으로, 자기 힘으로, 자기 손으로 새 생활을 창조하고 꾸려나가는 우리의 건설은 더 큰 전진력을 가지게 될것입니다.

록색건축, 건식공법과 같은 선진적인 건축기술, 건설공법들이 대담하게 혁신적으로 도입되고 건설장비들과 건재들을 생산하는 공업기지들의 토대가 더욱 확대강화될것이며 우리의 건설부대들과 건설자들은 보다 강력하고 능숙해질것입니다.

오늘의 대건설은 수도의 건설력사에 있어서도 기념비적인 의의를 가집니다.

이제부터 시작하는 5만세대의 살림집건설은 수도 평양의 도시구획을 동서방향과 북쪽방향으로 넓히면서 대규모의 현대적인 새 거리들을 일떠세우는 력사적인 건설사업입니다.

평양시의 송신지구와 송화지구, 서포지구, 금천지구, 9. 9절거리지구에 해마다 차례차례 1만세대의 살림집들과 이채로운 공공건물들이 솟아오르면 우리 국가의 수도는 더욱 웅장화려하게 변모될것이며 이것은 가장 간고하고도 영광스러운 21세기 20년대를 상징하는 뜻깊은 기념비로 될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일떠세우는 새 거리들에서 살게 될 시민들과 우리 후손들은 최악의 도전을 박차고 세계에 당당히 자랑할수 있는 거대한 건축군을 떠올린 우리 시대의 주인공들을 영웅적인 세대로 두고두고 추억하게 될것입니다.

이처럼 오늘의 대건설은 영광의 시대를 력사에 기록해놓는 위대한 사업입니다.

동지들!

건설은 시대가 도달한 정신적높이와 국력의 집합체이며 문명과 발전에로의 큰걸음입니다.

우리 국가제일주의를 들고 부강과 번영에로 나아가는 오늘 수도 5만세대 살림집건설장은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고조기, 격변기를 상징하는 주되는 공격전선으로 될것입니다.

5만세대 살림집건설을 통하여 우리는 수도의 면모를 또 한번 개변시킬뿐아니라 사회주의건설을 단계별로 확신성있게 승화발전시키는 새로운 전진의 시대, 격동의 시대를 열어놓게 될것입니다.

당중앙위원회는 방대한 대공사를 작전하면서 건설의 주역을 맡게 될 주력부대들을 강력하게 편성하는데 선차적인 주목을 돌리였습니다.

우리 당중앙이 5만세대 살림집건설을 결정하면서 제일먼저 믿은것은 두말할것없이 당과 인민에게 끝없이 충실한 혁명무력입니다.

인민군대는 조국과 인민을 견결히 보위하는 국가방위의 사명과 책임을 다하면서 인민의 행복을 창조하는데서도 언제나 큰 몫을 맡아 제껴왔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대건설전역들과 피해복구전구들에서 영웅적위훈을 떨친 인민군대가 기본전장을 타고앉아야 전반적인 건설대전에서 확고한 승리를 이룩할수 있습니다.

나는 우리의 인민군대를 누구보다 잘 압니다.

나는 우리 장병들이 창조적인 건설투쟁에서도 자기의 전투적기질을 남김없이 발휘하여 당과 인민의 기대에 어김없이 철저한 관철로써 보답할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지난 시기 려명거리건설을 비롯한 중요건설장들에서 뚜렷한 공훈을 세운 수도건설위원회와 속도전청년돌격대, 혁명사적지건설국, 대외건설국을 비롯한 사회의 주요건설부대들도 이번 대건설전투에 참가하게 됩니다.

대건설전투의 성과여부는 직접적담당자인 지휘성원들과 인민군군인들, 건설자들에게 달려있습니다.

우리 당과 국가의 건설정책과 지도는 최종적으로 매 건설일군들의 창조적열성과 노력에 의하여 현실화되며 당은 우리 건설자들의 열렬한 애국심과 재능을 무엇보다 크게 믿고 있습니다.

설계부문앞에 나서는 임무가 제일 중요합니다.

건설 그 자체가 고도의 창조적사업으로 되고있고 건축물들이 조형화, 예술화, 다기능화, 지능화되고있는 오늘 설계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고있습니다.

설계부문에 대한 우리 당의 요구는 설계도면의 선 하나, 점 하나에도 우리 시대의 사상과 넋, 약동하는 기상이 반영되고 세계와 당당히 겨루는 높은 리상과 문명수준이 비끼게 하는것입니다.

설계일군들은 이미 확정시달된 거리형성안과 설계방안대로 모든 대상설계를 당의 건축미학사상이 철저히 구현된 만점짜리로 작성하며 해당한 설계도면들을 시공부문에 시급히 넘겨주어야 하겠습니다.

시공을 맡은 모든 건설단위들은 건설작업에 지체없이 착수하여 일정계획을 일별, 주별, 월별로 어김없이 수행하며 상반년안으로 담당한 건축물의 골조공사를 기본적으로 끝내야 하겠습니다.

모든 건설부대와 단위들에서는 시공의 질을 높이는것을 주되는 과업으로 내세우고 건설작업의 전 공정을 질보장으로 일관시켜야 하겠습니다.

전체 일군들과 건설자들이 당과 국가앞에, 인민들과 후대들앞에 그리고 력사앞에 자기의 충실심과 애국심, 량심을 검증받는다는 자세와 립장을 항상 견지할 때 모든 건축물들이 명실공히 우리 시대의 훌륭한 창조물로 될수 있습니다.

건설감독부문의 역할을 높여 당과 국가의 건설정책, 인민의 요구와 리익, 건축의 안전성을 철저히 준수, 보장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1만세대 살림집건설에 필요한 자재와 설비들을 최우선적으로 제때에 보장하여야 합니다.

세멘트와 철강재, 각종 건재품들과 설비들의 생산을 맡은 공장, 기업소들에서는 로동계급의 혁명적열의와 창조력을 최대로 발동하여 맡겨진 생산과제를 제기일에 원만히 수행하는것으로써 수도의 살림집건설성과를 담보하여야 합니다.

철도운수를 비롯한 수송부문에서도 증송투쟁을 힘있게 벌려 수도의 대건설장과 철강재, 건재생산기지들에 요구되는 물동을 신속히 실어날라야 하겠습니다.

모든 사업에 정치사업, 사상공세를 앞세워 인민군군인들과 건설자들의 충성심과 애국심, 창조적지혜를 남김없이 발양시키며 건설시작부터 마감까지 온 건설장이 충천한 기세로 들끓게 하여야 합니다.

그리하여 대중을 보람찬 건설투쟁에 힘있게 조직동원할뿐아니라 오늘의 거창한 수도건설전투장이 곧 새로운 시대정신을 창조하고 용감한 실천가들, 씩씩한 사회주의근로자들을 키워내는 격렬한 혁명전구, 훌륭한 학교로 되게 하여야 할것입니다.

또한 건설에 참가한 군인들과 건설자들의 건강과 생활을 잘 보살피고 돌보는것을 최대로 중시해야 하겠습니다.

국가비상방역체계의 요구에 맞게 건설전역에 방역초소와 시설들을 빈틈없이 갖추어놓고 방역규정을 자각적으로 철저히 지키는 기풍을 수립할것이며 각종 사고와 재해를 예방하고 건설자들이 불편없이 작업에 전력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할것입니다.

군인들과 건설자들에 대한 후방공급사업을 해당 단위에만 맡겨둘것이 아니라 국가적인 보장체계를 강화하여 매 건설전투원들에게 규정된 공급량이 정확히 차례지도록 조직사업을 짜고들어야 하겠습니다.

동지들!

오늘은 우리가 첫삽을 뜨지만 이제 몇개월후이면 이 지역에 새로운 인민의 거리, 우리 모두가 자랑으로 여기게 될 희한한 대건축군이 솟아오르게 될것입니다.

바로 그 누구도 아닌 세상에서 제일 훌륭하고 위대한 우리 인민들이 정든 보금자리를 펴게 될 리상거리건설에 땀과 열정을 아낌없이 바치는것보다 더 보람차고 행복하고 영예로운 일은 없습니다.

더욱 아름다워지고 웅장해질 우리 수도의 래일을 위하여,

그속에서 새 문명을 마음껏 창조하고 향유할 우리의 부모형제들과 자녀들을 위하여,

당 제8차대회 결정의 빛나는 실행을 위하여 우리모두 힘차게 투쟁해나갑시다.

* * *

한집안식솔로 여기시고

재미교포 최덕신을 만나주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주체75(1986)년 8월

범민련 재중조선인본부 의장 양영동을 만나주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주체81(1992)년 8월

한때 사람들은 해외동포들을 두고 《무국적민》, 《소수민족》, 《민족의 파편》이라고도 하였다.

그러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해외동포들을 민족의 한 성원으로, 한집안식솔로 여기시며 그들을 한품에 안으시고 혈육의 정을 기울이시였다.

일찌기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조국광복회10대강령》에 해외조선동포들의 권리를 옹호할데 대한 문제를 중요과업의 하나로 제시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나라가 해방된 후에는 《재일 100만 동포들에게》라는 서한을 발표하시여 재일동포들을 사회주의조국의 품에 안아주시였다.

그후 재일동포들의 권리와 리익, 삶을 위한 해외교포조직인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총련)를 결성하도록 이끌어주시고 전후복구건설의 어려운 속에서도 동포들과 그 자녀들을 위해 해마다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을 보내주도록 국가적조치를 취해주시였다.

그리고 조국에 오고싶어하는 재일동포들의 마음을 헤아려 귀국의 배길도 열어주시였다.

그이께서는 지난날에는 나라를 빼앗긴탓으로 할수없이 우리 동포들이 여기저기 흩어져살아야 했지만 나라가 있고 주권이 있는 오늘에야 무엇때문에 이국땅에서 천대와 멸시를 받으며 고생스럽게 살겠는가, 설사 죽을 나누어먹는 한이 있더라도 모두 함께 모여살자고 하시면서 그들의 귀국을 실현하기 위하여 온갖 조치들을 취해주시였다.

하여 당시 세계가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의 민족의 대이동》이라고 경탄하였던 공화국에로의 귀국의 배길이 열리게 되였으며 수많은

동포들이 조국의 품에 안기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국땅에서 생활하는 동포들의 마음에 그늘이라도 질세라 언제나 세심히 보살펴주시였으며 그들이 조국을 방문하게 되면 만나주시고 혈육의 정을 베풀어주시였다.

그이의 사랑속에 한덕수초대의장과 리진규 제1부의장을 비롯한 재일조선인총련합회 일군들과 동포들이 조국과 민족이 기억하는 애국자로 영생하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중국, 로씨야, 미국, 도이췰란드를 비롯한 세계각국의 해외동포들에게도 깊은 관심을 돌리시였다.

그이께서는 가까이에 있는 자식보다 멀리에 있는 자식을 더 위해주는 친부모의 심정으로 조국에서 주요명절들을 맞을 때면 동포들을 경축행사장들에 불러주시였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도 찍어주시고 높은 국가수훈의 영예를 지니도록 하여주시였으며 금강산과 묘향산 등 명승지들에 대한 유람도 조직해주시였다. 뿐만아니라 애국적인 동포들이 사망하였을 때에는 조국에 있는 해외동포애국자묘에 안치하도록 해주시고 몸이 불편해하면 이름있는 병원에서 치료받도록 사랑과 은정을 베풀어주시였다.

그이의 동포애적사랑은 재중동포 양영동, 재로씨야동포 정일심, 재도이췰란드동포 윤이상, 재미동포 손원태를 비롯한 수많은 해외동포들에게 따뜻이 비쳐졌다.

뿐만아니라 그이께서는 지난날 조국과 인민앞에 죄를 지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민족적량심을 지닌 사람이라면 다 애국의 길에 내세워주시였다.

그이의 넓으신 도량과 인품에 끌려 인생의 전환을 하고 애국애민의 길을 걸은 해외동포들은 수없이 많다.

그들속에는 미국에서 《배달민족회》를 뭇고 활동하다가 조국에 와서 생의 말년을 보낸 최덕신도 있다.

그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화성의숙시절 스승이였던 애국지사 최동오선생의 아들이다. 하지만 그들부자가 걸은 길은 판이하였다.

아버지가 화성의숙에서 나라의 독립을 위해 활동할 때 아들은 이국에서 남의 나라 군복을 입고 헤매였고 아버지가 4월남북련석회의에 참가하기 위해 북행길을 떠날 때 아들은 아버지를 막아나섰으며 아버지가 반미반외세를 주장할 때 아들은 반공일선에 나섰다.

그러던 그가 인생말년에 자기의 잘못을 깨닫기는 하였지만 그것은 너무도 때늦은것이였다.

하지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를 한품에 안아주시고 죄많은 그의 한생을 용서해주시였다.

그가 죽기 전에 선친의 묘에 술이라도 한잔 붓겠다고 조국으로 힘든 걸음을 했던 때인 주체70(1981)년 7월 1일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를 친히 만나주시였다.

뜻깊은 석상에서 최덕신은 《주석님, 민족앞에 얼굴을 들수 없고 선친을 위해주신 주석님을 대할 면목이 없습니다.》라고 머리를 들지 못하고 속죄의 말씀을 드리였다.

그가 더듬거리며 하는 말을 듣고계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의 말을 제지시키시며 과거는 어디까지나 과거이라고, 우리와 손을 잡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한몫하여야 한다고 하시였다.

그이의 대해같은 도량에 감복한 최덕신은 그후부터 애국사업에 전심전력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러한 그를 굳게 믿으시고 조국에 올 때마다 만나주시고 뜨거운 사랑을 베풀어주시였다.

그가 로환으로 앓을 때마다 조국에 불러주시여 병치료를 하도록 해주시였으며 조국에 영주하였을 때에는 조국평화통일위원회(당시) 부위원장의 중임도 맡겨주시였다.

세상에 사랑의 의미는 각이하고 사랑의 품 또한 많아도 위대한 수령님의 품, 조국의 품은 해외동포들모두가 주의주장과 계급, 계층, 신앙을 초월하여 안기는 은혜로운 어버이품이였다.

본사기자

제12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에 참가한 해외동포예술인들의 환호에 답례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주체83(1994)년 4월

수 기

친어버이심정으로

제가 부모의 곁을 떠나 조국에 나오던 때가 엊그제같은데 벌써 근 50년이 되여옵니다.

그때 17살의 단발머리처녀였던 저는 어느덧 손자, 손녀를 거느린 할머니가 되였습니다.

원래 제가 살던 곳은 중국 길림성 류하현이였습니다. 류하현의 한 농촌마을에서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우리 5남매가 살았습니다. 중국 동북3성의 그 어디나 그러하듯이 그곳에도 조선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당시 농업전문학교를 졸업했고 기자까지 한적이 있던 아버지(정상범)는 조선사람들로 동포조직을 뭇고 그들을 계몽시키기 위한 사업을 하고있었습니다. 지금도 동포들속에 조국소식을 전하는 벽신문형식의 출판물을 발간하던 아버지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동포활동의 바쁜 속에서도 아버지는 수의병원을 운영하면서 좋은 집짐승종자나 방역에 필요한 약, 도서 같은것을 구하면 조국에 먼저 보내군 하였습니다.

그러한 아버지를 두고 많은 동포들이 애국동포라고 부르군 하였습니다.

그러던 주체81(1992)년 4월 어느날 범민련 재중조선인축하단 성원으로 조국에 와있던 아버지는 오매불망 그리워하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만나뵙게 되였습니다. 정중히 인사를 올리는 아버지를 만나주신 그이께서는 먼길을 오느라고 수고했다고, 항일의 전구에서 백두산을 바라보며 조국을 잊지 않고 산다니 정말 반갑다고 하시였습니다. 그이께서는 축하단성원들에게 가족들도 다 잘 있는가고 안부를 물으시고나서 아버지에게도 이번에 조국에 있는 딸자식을 만나보았는가고 물어주시였습니다.

수령님의 대해같은 믿음속에 일을 제대로 하고있다고 말씀올리는 아버지의 대답을 들으신 그이께서는 자신께서도 조국에 온 해외동포자녀들이 일을 잘한다는 보고를 받을 때가 제일 기쁘다고 하시였습니다. 그날 그이께서는 아버지를 비롯한 축하단성원들을 자신의 곁에 세워주시고 기념사진도 찍으시였습니다.

슬하를 떠난 자식을 위하는 친부모의 사랑으로 조국에 올 때마다 만나주시고 자녀들에 대해서 잊지 않고 다심하게 관심하고계시는 그이를 우러러 아버지는 격정을 금치 못해하였습니다.

사실 제가 부모의 슬하를 떠나 조국에 오게 된것도 위대한 수령님께서 취해주신 조치에 의해서였습니다.

제가 이국땅에서 중학교를 마친것은 주체61(1972)년이였습니다. 그런데 진학문제로 아버지도 저도 고심하게 되였습니다. 여러 문제가 제기되였던것입니다.

이러한 때 수령님께서는 저와 같은 해외동포자녀들이 조국에 나와 대학공부를 할수 있도록 해주시였습니다. 대학에로의 진학의 길이 막혀 애타하고있는 이역땅의 이름없는 한 처녀의 심정을 헤아리시고 조국에로 부른다고 생각하니 더는 지체할수 없었습니다. 하여 저는 압록강을 건너 조국에 나오게 되였던것입니다. 집떠나면 고생이라지만 나라에서는 저에게 옷을 비롯한 생활필수품과 교과서, 학용품들을 무상으로 보장해주면서 대학까지 졸업시켜주었고 대외사업일군으로, 오늘은 공화국의 로력영웅으로 내세워주었습니다.

부모들은 남부럽지 않게 자란 딸자식을 둔데 대해 긍지로 생각하고 애국사업에 전심하였습니다.

이것은 조국만 믿고 따르는 해외동포일군으로서 응당 해야 할 일이였습니다.

하지만 수령님께서는 아버지를 공화국창건기념일을 맞으며 진행되는 경축행사들에 초청해주시고 기념사진까지 찍어주시였습니다.

하기에 언제인가 조국을 방문했던 아버지는 조국은 수령님의 품이라는 내용의 즉흥시까지 읊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각이한 인생행로를 걸어온 해외동포들을 혈육의 정으로 품어주고 내세워주는 조국이야말로 민족의 삶의 품입니다.

국가관광총국 만경대관광기념품전시관
경리 정신

◇ 일 화 ◇

만족이란 있을수 없다

주체101(2012)년 7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5월에 이어 또다시 류경원을 찾으시였다.

대동강반의 풍치와 어울리게 시원스러운 물결모양의 지붕을 떠이고 특색있게 일떠선 류경원의 외부를 바라보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전경도앞에서 해설을 듣던 때가 엊그제같은데 그사이 몰라보게 달라졌다고 기뻐하시였다.

이날 그이께서는 휴식홀과 미안실, 목욕탕들을 돌아보시며 인민들에게 더 잘 봉사할수 있게 비품들과 설비들을 갖출데 대하여 가르쳐주시였다.

원형휴식홀의 공간이 비여있는것을 보신 그이께서는 이 공간에 화단을 만들어놓으라고, 여기가 휴식홀인것만큼 사람들이 휴식하기 편리하게 의자도 놓아주고 매대도 꾸려놓아 손님들에게 청량음료 같은것을 봉사해주라고 말씀하시였다.

하나의 휴식장소를 보시면서도 어떻게 하면 인민들의 편의를 최대한으로 보장해줄수 있겠는가 세심히 마음쓰시는 그이이시였다.

그이께서는 한증방들을 돌아보시며 소독도 철저히 하여야 한다고 당부하시였다.

그리고 한증방휴식홀의 의자를 보시고는 위생성이 보장되지 않았다고 하시면서 한증을 하고 나온 다음에도 잔등으로 땀이 흐르므로 의자에는 일반천을 씌우지 말고 소독수로 닦아내도 젖지 않게 수지물을 입힌 빳빳한 천을 씌워야 한다고 하시였다.

무엇을 하나 보시여도 인민들이 리용하기에 편리한가, 위생성은 철저히 담보되는가 하는것부터 알아보시고 대책을 세워주신 그이께서는 치료체육실의 기재는 어떻게 마련하려고 하는가도 료해하시고 일광욕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리용할수 있게 자외선침대도 보내주도록 조치를 취해주시였다.

그리고 리발실을 돌아보시면서는 소독대의 위치도 바로잡아주시고 자외선소독기를 놓을 밀차까지 보내주도록 대책을 세워주시였으며 제기되는것이 없는가도 다정히 물어주시였다.

그날 그이께서는 현지지도를 마치고 떠나시기에 앞서 다시금 건설을 책임진 일군들에게 시간이 좀 지체되더라도 류경원을 똑똑히 꾸려놓고 운영단위에 넘겨주라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인민을 위한 일에서는 만족이란 있을수 없다는것을 명심하고 완공되는 날까지 일을 잘하여야 한다고 이르시였다.

본사기자

크기와 무게로 잴수 없는 기념돌

평양의 대동강반에 주체사상탑이 서있다.

주체사상탑은 주체71(1982)년 4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70돐을 맞으며 건립되였다.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의해 창시되였다. 주체사상은 사람중심의 학설이다. 조국은 주체사상을 사회전반에 구현하여 복잡다단한 국제정세속에서도 사회주의건설을 승리적으로 전진시켜왔다.

오늘 주체사상에 공감한 사람들의 수는 나날이 늘어가고있으며 세계 여러 나라들에 주체사상연구조직들이 결성되고 연구토론회들이 진행되고있다.

주체사상을 신봉하고 따르려는 진보적인류의 마음은 그들이 주체사상탑에 기증한 기념돌들에도 어려있다.

주체사상탑이 건립된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지난 근 40년간 세계 여러 나라 국가수반들과 정계, 사회계를 비롯한 각계 인사들, 국제기구, 주체사상연구조직들에서 주체사상탑에 기념돌들을 보내여왔다.

현재 주체사상탑 기단전실에는 세계 100여개 나라에서 보내여온 300여개의 기념돌들이 전시되여있다.

매 기념돌들의 크기는 길이 60㎝, 너비 20㎝, 두께 5㎝이다. 비록 크지도 무겁지도 않지만 기념돌들마다에는 사연들이 깃들어있다.

뻬루의 주체사상신봉자들은 돌에 금이 가면 심장에 금이 간다고 하면서 안데스산줄기에 묻혀있는 희귀한 대리석을 소중히 운반하여 주체사상탑에 기증하였다. 파키스탄의 한 주체사상신봉자는 반지나 귀걸이와 같은 고급장식품을 만드는데만 쓰인다는 진귀한 옥돌판석 30여장을 구해다 정성껏 다듬어 보내여왔다.

무게있고 빛갈이 은근하여 과거에 왕궁을 짓는데만 썼다는 천연대리석을 보내온 뽀르뚜갈의 주체사상신봉자들, 제일 좋은 대리석에 **김일성**화를 정성껏 새겨보낸 인도네시아의 기자들을 비롯하여 주체사상을 따르며 자주성을 지향하는 세계 진보적인류의 지성이 기념돌들에 그대로 비껴있다.

기증된 기념돌들은 그 산지와 재질, 보내온 사람들의 국적과 언어, 피부색은 서로 달라도 주체사상의 영원성을 길이 전하고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리론적 업적을 칭송하려는 마음들이 깃든 재부가 아닐수 없다.

이곳을 참관한 외국인들은 주체사상탑은 **김일성**주석의 혁명사상을 칭송하며 따르는 세계 진보적인민들의 뜨거운 마음들에 떠받들려 거연히 솟아 시대의 앞길을 비쳐주는 인류공동의 대기념비라고 말하고있다.

한 외국인은 감상록에 다음과 같은 글을 남기였다.

《이 주체사상탑이 상징하는 주체사상은 세계인민들의 희망의 등대입니다. 제가 이 주체사상탑에 기증한 돌이 주체사상의 위대함을 상징하는 주추돌이 되여 인류의 자주위업의 빛나는 완성에 기여하기를 바랍니다.》

년대와 세기를 이어오며 세계 많은 나라에서 주체사상을 칭송하고 따르는 인류의 마음을 담아 보내여온 기념돌들은 주체사상탑과 더불어 길이 전해질것이다.

본사기자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보내여온 기념돌들의 일부

기념돌들을 돌아보는 해외동포들 주체107(2018)년 촬영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중에서

새 무장력의 탄생

(전호에서 계속)

나는 그냥 내가 가야 한다고 고집하였다. 내가 그렇게 고집한것은 남들보다 뛰여난 외교술을 가지고있거나 우사령을 굽혀낼 특별한 처방이라도 있어서가 아니였다. 유격대의 존망이 우사령과의 담판에 달려있고 우리의 성패도 그들과의 련계를 조정하는데 달려있다는것과 구국군을 동맹자로 만들지 않고서는 우리가 동만땅에서 유격전은 고사하고 문전출입조차 할수 없다는것이 엄연한 현실로 되고있었기때문이였다. 그리고 이 고비를 잘 넘기고 무장투쟁을 시작하지 못한다면 조선의 남아로서 살 보람도 없고 살아야 할 리유도 없다고 생각하였기때문이다.

나는 죽음을 두려워하면 혁명을 하지 못한다, 내가 중국말을 잘하고 청년운동시기에 풍랑도 여러차례 겪어본것만큼 가기만 하면 얼마든지 우사령을 만날수 있다, 그러니 내가 가야 한다고 동무들을 설복하였다. 그런 다음 박훈, 진한장, 호진민 그밖의 중국청년 한명을 더 데리고 우사령을 찾아 떠났다. 아무런 신변안전담보도 없는 모험의 길이였다.

상대측의 사령부는 량강구에 자리잡고있었다.

구국군이 우리더러 어디에서 왔는가고 물으면 우리는 안도에서 왔다고 하지 말고 길림에서 왔다고 대답하기로 약속하였다. 구국군들앞에서 유격대의 주둔구역인 동만의 지명을 대는것은 재미가 없었다.

우리는 대사하로 가는 길에서 우사령부대와 맞다들었다. 수백명의 대오가 《삼국지》에 나오듯이 《우사령》이라고 쓴 기발을 날리며 위풍당당하게 행군해오고있었다. 우사령부대가 남호두에서 일본군대를 소탕하고 기관총까지 로획한 후여서 그들에 대한 소문이 굉장히 날 때였다.

《피하지 않겠소?》

호진민이 불안스러운 표정으로 나를 돌아보았다.

나는《아니, 맞받아나가자구!》하면서 그냥 앞으로 걸어나갔다. 나머지 네사람도 나의 량옆에 가지런히 서서 보조를 맞추어 걸어나갔다.

구국군들은 우리를 보자 《꼬리빵즈, 오라!》하고 호령하였다. 그리고는 다짜고짜 우리를 체포하려고 하였다.

나는 그들에게 우리도 당신들처럼 항일을 하는데 왜 붙잡으려고 하는가고 중국말로 항의하였다. 그들은 나에게 조선사람이 아닌가고 되물었다. 나는 떳떳하게 조선사람이라고 대답한 다음 진한장, 호진민동무들을 가리키며 이 사람들은 중국사람이라고 하였다.

《우리는 급히 상의할 문제가 있어 당신네 사령한테로 찾아가는 길이요. 우리를 사령한테로 안내하시오!》

내가 이렇게 위엄을 풍기며 요구하자 그들은 좀 수그러들면서 자기네를 따라오라고 하였다.

우리가 그들을 따라 얼마쯤 갔을 때 구동북군 장교차림의 지휘관이 점심식사지령을 내리고 우리를 어떤 농가에 구금하였다.

그런데 이때 뜻밖에도 길림육문중학교시절의 나의 스승이였던 류본초선생이 그 집으로 들어왔다.

류본초선생은 육문중학교에서 얼마동안 한문을 가르친적이 있고 그후 문광중학교와 돈화중학교에서도 교편을 잡은 사람이였다. 그는 상월선생과도 친교가 깊었고 진한장과도 잘 아는 사이였다. 선생이 호인이고 지식이 해박한데다가 좋은 책들도 많이 알선해주고 훌륭한 시들을 지어 학생들앞에서 즐겨 읊어주었기때문에 우리는 무척 그를 따르고 존경하였다.

나와 진한장은 류본초선생을 알아본 순간 탄성을 내지르며 선생의 앞으로 뛰여갔다. 역경에 처했을 때 선생을 만나니 더 반가운 생각이 들었다.

류본초선생도 기쁨과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우리에게 연방 질문을 던지였다. 너 김성주, 어째서 여기 있느냐? 어떻게 되여 여기에 왔느냐? 어데로 가다가 이렇게 붙잡혔느냐?

내가 사연을 간단히 설명하자 선생은 자기 부하들에게 《이 사람들을 잘 대접하라. 나도 여기서 점심을 함께 먹겠다. 잘 차려오라.》하고 큰소리로 지시하였다. 알고보니 그는 일본군대가 만주로 쳐들어오자 교단을 떠나 우사령부대에 들어와 참모장으로 활동하고있었다.

(다음호에 계속)

승리의 전통은 세대를 이어

군대가 강하여야 국가가 강하고 인민의 존엄이 높은것이다.

총대로 장구한 항일대전에서 승리하고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구원한것은 조선인민혁명군이다.

카륜회의[주체19(1930)년 6월 30일-7월 2일]에서 제국주의침략세력은 혁명적무력으로 때려부셔야 한다는 무장투쟁로선을 제시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겨울명월구회의[주체20(1931)년 12월]에서 유격전을 기본으로 하여 항일무장투쟁을 조직전개할데 대한 전략적방침을 제시하시였다.

당시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인민을 믿고 항일대전을 시작하실 결심을 하시였다.

력대로 남들이 유격전을 정규전의 보조수단으로 보고있을 때 그이께서 그것을 기본적인 투쟁형식으로 확정하신것은 당시의 구체적현실에 부합되는 과학적이고 창조적인 결단이였다.

사람문제, 무기문제, 교련문제, 식량문제 등 많은 난문제를 해결하시며 혈전의 준비를 갖추신 그이께서는 주체21(1932)년 4월 25일 안도현 소사하의 토기점골등판에서 조선인민혁명군의 창건을 선포하시였다.

조선인민혁명군이 창건됨으로써 인민은 처음으로 자기의 진정한 군대를 가지게 되였으며 이때로부터 총대의 위력으로 전진하는 조선혁명의 력사, 강군의 력사가 시작되였다.

그이께서는 창건후 곧 무장대오를 거느리시고 조국으로, 백두산지구로 진군하시였다.

보천보전투, 간삼봉전투, 무산지구전투…

그이께서는 항일대전의 나날 유인매복전, 기습소탕전, 일행천리전술, 망원전술 등 령활무쌍한 유격전법으로 일제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가하시였다.

비행기와 땅크를 비롯한 현대적무장장비를 갖추고 조선인민혁명군을 《창해일속》이라고 얕보며 으시대던 일제침략자들은 전투마다에서 패전을 면치 못하였다.

마침내 조선인민혁명군은 일제침략자들을 타승하고 조국해방[주체34(1945)년 8월 15일]의 력사적위업을 성취하여 민족재생의 서광을 안아왔다.

그이께서 조직령도하신 항일대전은 정신력에 있어서나 전략전술에 있어서 조선인민혁명군을 강군으로 건설하고 유격전으로 정규군을 타승한 혁명전쟁으로 되였다.

조국해방의 력사적위업을 실현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지체없이 정규무력건설로선을 내놓으시고 현명하게 이끄시여 불과 2년 남짓한 기간에 륙, 해, 공군을 갖춘 조선인민군을 창건하시였다.

조선인민혁명군의 자랑스러운 전통을 이어받은 조선인민군은 조국해방전쟁에서 전승신화를 창조하고 강군의 위용을 떨치였다.

조선인민군은 세월을 넘어 세대를 이으며 적대세력들의 새 전쟁도발책동을 짓부시며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존엄을 굳건히 수호하였다.

나라의 평화적환경은 그 누가 마련하여주는것도, 그 무엇을 주고 얻을수 있는것도 아니며 진정한 평화는 그 누구도 범접 못하게 자기의 힘이 강할 때에만 지켜지고 오직 자기 힘에 의하여서만 담보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건하시고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밑에 더욱 강화발전된 공화국의 자위적무장력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하에 무진막강한 위력을 높이 떨치며 나라와 인민의 존엄과 안전을 믿음직하게 수호하고있다.

조국수호의 최전방초소들과 전투훈련장들, 첨단무기시험발사장들을 비롯한 무장력강화의 길을 걷고걸으시는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령도에 의해 인민군대의 위력은 비상히 강화되였다. 남들이 수십년을 두고도 이루지 못한 군사적기적들이 짧은 기간에 다발적으로, 련속적으로 일어나 그 누구도 넘볼수 없게 공화국의 군력은 백방으로 다져지게 되였다.

세월은 많이 흘렀어도 적대세력들의 반공화국책동은 추호도 변하지 않았으며 힘이 약하면 망국노가 되고 민족이 온갖 불행과 재난을 면할수 없다는 것을 지나온 력사가 잘 보여주고있다.

강한 군력에 나라와 민족의 존엄도 있고 평화도 있으며 후손만대의 행복과 번영도 있다는것을 조국인민들은 뼈에 새기고있다.

본사기자 진룡진

오늘도 맥박치는 천리마의 정신

철의 기지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가 쇠물처럼 끓고있다.

전후에 강재 1만t만 더 있으면 나라가 허리를 펴겠다고 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호소를 받들고 6만t능력의 분괴압연기에서 12만t의 강재를 뽑아 천리마의 시대를 펼친 전세대들의 그 정신, 그 기백으로 강선의 로동계급은 당 제8차대회가 제시한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수행에 한결같이 분발해나섰다.

김한일지배인은 《기업소에서는 새로운 5개년계획에 반영된 강철생산목표에 따라 올해 계획을 현실적으로, 구체적으로 확정한데 이어 그 실현에 모두가 떨쳐나섰다.》라고 말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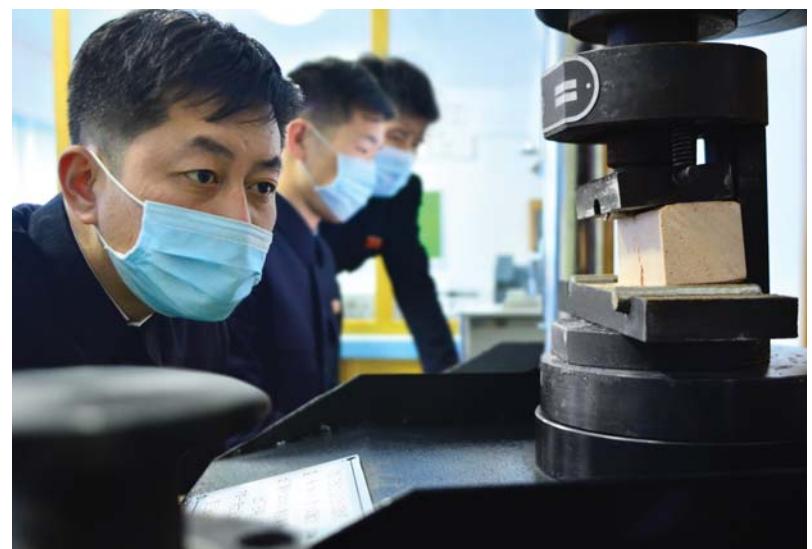
기업소의 일군들은 경영관리를 개선하는 한편 압연강재생산의 정상화와 전반적생산공정들의 기술개건에 선차적인 힘을 부여하고있다.

이에 따라 압연공정과 단조공정의 정상적인 가동과 부문구조를 더욱 완성하기 위한 기술개건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있다. 이외에도 자체의 기술력량에 의거하여 강철생산원가를 낮추기 위한 과학연구도 계획성있게 추진하고있다.

이뿐이 아니다.

기업소에서는 대중적기술혁신운동도 힘있게 벌어지고있다.

기업소의 기술자, 로동자들은 합심하여 초고전력전기로에 산소-미분탄취입기술을 비롯한 가치있는 기술혁신안들을 창안도입하여 전력과 전극, 내화물소비를 줄이면서 생산성을 훨씬 높이였다.

그리고 강철직장의 남비가열공정을 확립하는데 필요한 가스발생로제작설치에서도 대중의 집체적지혜를 발휘하여 많은 예비와 가능성을 찾아내고있다.

기업소에서는 초고전력전기로와 련속조괴기, 남비정련로와 련속압연기를 갖춘 4기일체화된 선진적인 강철생산공정을 확립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있다.

이와 함께 보산제철소에 에네르기절약형의 새로운 제철로를 건설하여 부족되는 강철생산원료를 원만히 보장하기 위한 사업도 따라세우고있다.

강철생산이자 국력이라는 자각을 안고 과학기술에 의거하여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는 로동계급의 불같은 애국의 마음에 의해 기업소의 물질기술적토대는 날로 정비보강되고있으며 이것은 강철생산성과에로 이어지고있다.

글 본사기자 김지성
사진 본사기자 김영호

과학기술로 담보

내화물재료의 특성실험을 진행하고있다.

주체철생산체계를 기술적으로 완성하고 생산능력을 확장하며 철강재생산을 결정적으로 늘이기 위한 사업이 여러 제철, 제강소들에서 활발히 진행되고있다.

주요제철소들에서는 현존생산공정들을 선진기술로 개조하여 에네르기절약형의 새로운 제철로를 건설하기 위한 사업이 추진되고있다. 많은 과학연구단위들이 이를 과학기술적으로 담보해가고있다. 그러한 연구집단들중에는 김책공업종합대학 금속공학부도 있다.

박사 부교수 민광식을 비롯한 주체철연구실의 연구사들은 지난해 연구완성한 새로운 제철로를 김책제철련합기업소에 건설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그들은 새 제철로에서 산소와 석탄소비를 줄이면서 주체철생산을 지금보다 더 늘이고 로에서 폐가스를 보다 효과적으로 리용할수 있는 수많은 기술적문제들을 제때에 해결하고있다.

공업로공학강좌와 야금리론학강좌를 비롯한 여러 강좌의 연구사들도 나라의 야금기지들이 용을 쓰게 할 목표를 세우고 과학연구사업을 다그치고있다.

제철, 제강소들에 나간 그들은 여러 계통에 대한 기술지도서, 조작지도서를 작성하여 생산성을 지난 시기보다 1.3배로 높이는데 기여하였다. 뿐만아니라 여러 단위들에서 무연탄연소효률을 높임으로써 로운영의 정상화, 환원철생산공정 등을 확립하는데 이바지하였다.

그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의해 새로운 5개년계획에 반영된 철강재생산목표를 점령하기 위한 사업에서는 돌파구가 열리게 되였다.

학부장 김정호는 《나라의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떠받드는 금속공업을 정상궤도에 올려세우는데서 견인기적역할을 수행해야 할 임무가 바로 과학자, 기술자들인 우리한테 지워져있다.》라고 말하였다.

글 본사기자 련 해
사진 본사기자 김강무

합리적인 야금기술에 대하여 토론하는 연구사들

금속공업부문에서 큰걸음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에서 제시된 새로운 5개년계획수행에 떨쳐나선 금속공업부문 일군들과 로동계급의 생산열의는 날이 갈수록 더욱 고조되고있다.

금속공업성 부국장 김세철은 《전반적인 인민경제발전에서 금속공업이 맡고있는 임무가 대단히 중요하다. 철강재가 많아야 화학, 전력, 석탄, 기계공업을 비롯한 기간공업의 발전을 적극 추동할수 있고 나라의 면모를 일신시킬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성의 일군들은 새로운 5개년계획에 반영된 철강재생산목표를 점령하기 위하여 금속공장들에 대한 원료보장을 맡은 광산들의 생산토대를 정비보강하고 능력을 확장하기 위한 대책을 면밀히 세워나가고있다.

우선 철광석생산능력확장에서 의의가 있는 새 대상들의 조업을 최대한 앞당기며 국가과학원 흑색광업연구소를 비롯한 과학연구단위들과 긴밀히 협동하여 금속공장들에 보내줄 철정광의 품위를 높이기 위한 경제기술적대책을 따라세우고있다.

철강재증산의 뚜렷한 성과를 이룩해나갈 생산자들의 열의는 나라의 주요 제철, 제강소들과 광산, 전극과 내화물생산기지들에서 더욱 높아가고있다.

철광석과 전극, 내화물 등의 생산을 맡은 단위들의 조건은 의연히 어렵지만 무산광산련합기업소와 은률광산, 재령광산, 금포광산의 철광석생산단위들에서는 채굴설비와 벨트콘베아를 복구, 보강하여 설비들의 가동률을 높이면서 맡겨진 생산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해나가고있다.

흥남전극공장, 장산광산, 홍산광산, 부령합금철공장을 비롯한 여러 단위에서도 매일 맡겨진 전극, 내화벽돌, 흑연, 규소철생산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하여 철강재생산에 적극 이바지하고있다.

지금 새로운 5개년계획수행의 출발선에 나선 여러 금속공장 생산자들앞에는 선철과 압연강재생산에서 개선을 가져올수 있는 담보를 마련하며 에네르기절약형의 새로운 제철로를 건설하여 생산능력도 확장해야 할 임무가 나서고있다.

김책제철련합기업소에서는 정광수송관의 정비보수를 새로운 5개년계획의 첫해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중요한 문제의 하나로 정하였다. 이곳 련합기업소안의 여러 단위 생산자들은 부족되는것이 많지만 잡도리를 든든히 하고 달라붙어 정광수송관의 정비보수를 책임적으로 해나가고있다.

황해제철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기술자, 로동자들도 새로운 결심을 안고 과감한 실천투쟁에 궐기하였다.

앞으로 5년간 현존생산공정을 기술적으로 개조하고 에네르기절약형의 새로운 제철로를 일떠세워 새로운 5개년계획에 반영된 철강재생산목표를 점령하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일거리들을 하나하나 현실적으로, 구체적으로 확정한 이곳 로동계급은 그 준비를 다그치면서 철강재생산도 동시에 내밀고있다.

보산제철소, 청진제강소를 비롯한 금속공장들의 일군들과 생산자들도 현존생산공정을 선진기술로 개조하고 생산능력을 높이는데서 당면하게 나서는 과업들을 수행하면서 철생산을 늘여가고있다.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와 황해제철련합기업소에서는 로의 가동률을 높이며 차지당 쇠물생산량을 늘이기 위해 원료장입으로부터 출선에 이르는 전공정에 대한 기술관리를 짜고들어 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하고있다.

새로운 5개년계획수행에 떨쳐나선 금속공업부문의 일군들과 기술자, 로동자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의해 올해 철강재생산에서는 시작부터 큰걸음을 내짚고있다.

본사기자 연 옥

정비전략, 보강전략으로

지난 1월에 진행된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에서는 현 단계에서 당의 경제전략은 정비전략, 보강전략이라는데 대하여 중요하게 강조하였다.

이 경제전략은 현시기의 주객관적요구를 정확히 반영한것으로서 사회주의경제건설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나가기 위한 중요한 담보로 된다.

조선로동당이 새로운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수행을 위한 투쟁전략을 정비전략, 보강전략으로 내세운데는 그 타당성이 있다.

정확한 결론밑에는 언제나 주객관적요인과 함께 과학적인 론거가 있다.

조선로동당은 당 제8차대회에서 지난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과정을 엄정히 분석총화하였다.

혹독한 대내외정세가 지속되고 예상치 않았던 도전들이 겹쳐드는 속에서 지난 5년간 경제건설에서는 일련의 성과도 있었지만 발전을 저애하는 결함들이 적지 않았다.

제국주의자들의 제재봉쇄책동의 후과와 해마다 들이닥친 자연재해, 지난해에 발생한 세계적인 보건위기의 장기화는 경제발전에 심각한 장애를 조성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객관적요인에 불과한것으로서 주체의 작용과 역할을 중시하는 조선로동당에 있어서 발전을 가로막는 기본장애로는 될수 없었다.

조선로동당은 국가경제사업내부에 산적되여있는 부진상태와 그 원인을 심각히 분석하고 평가를 내리였다.

기본장애물은 바로 낡은 경제사업체계와 불합리하고 비효률적인 사업방식과 질서, 부문들사이의 불균형적인 련계 등 내부요소들이며 이를 철저히 극복하지 않고서는 언제 가도 나라의 경제를 추켜세울수 없다는 총적인 교훈을 찾게 되였다.

바로 이런데로부터 조선로동당은 옹근 하나의 전망계획기간의 경제전략을 정비전략, 보강전략으로 정하고 실질적인 조치들을 취하였다.

사회주의경제관리개선의 근본요구와 근본방향에 립각하여 경제사업체계와 질서를 정비보강하며 부문들사이의 유기적련계를 복구정비하고 자립적토대를 더욱 튼튼히 다짐으로써 경제를 그 어떤 외부적환경에도 흔들림없이 원활하게 운영되는 정상궤도에 올려세우자는것이 조선로동당의 확고한 결심이고 의지이다.

여기에 한가지 중요한 문제점이 있다.

조선로동당이 정한 정비전략과 보강전략이 안고있는 의미이다.

일반적으로 정비와 보강이라고 할 때 어떤 상태가 헝클어진것을 바로잡거나 보충하여 강하게 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5개년계획기간의 정비보강은 결코 현재상태를 유지하거나 보존하기 위해 하는 정비보강이 아니라 부단한 전진과정에 오늘과 래일을 다같이 책임지는 립장에서 발전하는 현실을 따라앞서며 더 강하고 발전된 토대를 구축한다는 의미를 안고있다.

다시말하여 첨단과학기술에 의거하여 현행생산도 활성화하는 동시에 지속적이고 전망적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튼튼한 토대를 구축한다는 것이다.

세계는 부단히 발전하고있다.

새 기술개발과 갱신이 급속도로 이루어지고있는 오늘 생산공정의 기술개건은 물론 경제사업체계와 질서 등 모든 경제요소들은 수십년을 내다보며 확고한 과학기술적토대우에서 발전시켜나가야 한다.

조선로동당의 경제전략을 받아안고 지금 경제부문의 그 어느곳에서나 나라의 경제를 하루빨리 첨단수준에 끌어올리기 위한 작전과 운영이 활기있게 진척되고있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과 단위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새로운 각오와 결심, 혁신적인 안목으로 자기 단위의 실정을 구체적으로 타산한데 기초하여 계획을 과학적으로 치밀하게 세우고 완강히 실천해나가고있다.

자기의 힘과 잠재력을 정확히 파악하고 발전방향도 명확히 선택한 이상 앞으로 5개년안에 이루어질 경제발전의 전망에 대해 조국인민들은 굳게 확신하고있다.

본사기자 김성경

과일가공품이 늘어난다

강원도 철령아래 펼쳐진 고산과수종합농장 고산과일가공공장은 지난해 10월 조선로동당 창건 75돐을 맞으며 준공된 공장이다.

수천t능력의 과일보관고와 물원천 및 전력보장조건 등의 하부구조가 발달되여있는 공장은 중부와 동부지역의 교통상 유리한 지대에 위치한것으로 하여 생산된 과일과 가공제품들을 소비지에로 수송하는데도 매우 유리하다.

준공후 첫시기부터 공장에서는 고산과수종합농장의 맛좋은 과일들을 원료로 하여 단물, 과일발효초, 말린편과 같은 여러가지 가공품들을 생산하였다.

공장의 일군들과 기술자, 로동자들은 인민들의 요구에 맞게 새 제품개발사업에 선차적인 힘을 넣고있다.

그들은 사과씨기름과 포도주를 새로 개발하였으며 수입에 의존하던 첨가제대신 국내산 첨가제를 개발하여 과일농축물의 실수률을 높이는데 성공하였다.

과일가공품발전추세에 대한 연구와 제품별로 국내수요를 료해분석한데 기초하여 일군들과 기술자들은 종전보다 원가를 훨씬 줄이면서도 과일가공품의 맛을 더 좋게 하기 위해 노력하고있다.

당 제8차대회와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2차전원회의 과업관철에 떨쳐나선 공장종업원들의 열의에 의해 생산은 계속 확대되고있다.

글 본사기자 리 해
사진 본사기자 안철룡

기술개건으로 생산능력 확대

《우리 공장의 발전은 나라의 교육정책과 떼여놓고 생각할수 없다.》라고 교육도서인쇄공장 지배인 림경준은 말하였다.

주체37(1948)년에 창립된 교육도서인쇄공장에서는 지난 기간 전국의 학생들에게 공급할 교과서와 참고도서들을 전문적으로 생산할수 있는 물질기술적토대를 갖추어왔다.

지난해 10월 공장은 국가적인 계획에 따라 전반적생산공정들을 현대화하여 로력절약형, 부지절약형, 기술집약형기업체로 자기의 면모를 일신하였다.

자재공급으로부터 제판, 인쇄와 제책 등 공장의 전반적생산공정들은 지능형생산체계에 의해 자동흐름선화되여있다.

가상물리생산체계, 사물인터네트, 구름계산, 대자료분석이 융합된 지능형생산체계는 공장에서 생산과 경영활동을 보다 과학적으로, 종합적으로 진행해나갈수 있게 하고있다.

이외에도 제책직장과 인쇄직장, 반제품직장을 비롯한 주요 생산공정들의 설비들에 대한 수자화가 실현되고 실시간품질검사체계가 도입되였다.

현대화를 통해 생산설비들의 작업능률이 종전보다 현저히 높아지게 되였다.

이뿐이 아니다.

송배풍체계와 제품생산과정에 나오는 파종이와 종이먼지를 회수처리하는 공정이 새롭게 확립되여 공장의 생산환경은 위생성이 철저히 보장되고있다.

전반적생산공정이 일신되고 경영활동의 최적화, 최량화가 실현된 교육도서인쇄공장은 생활력을 뚜렷이 발휘하고있다.

현재 공장은 종전에 비해 로력을 35%나 절약하면서도 생산성은 2배이상으로 장성하여 년간 수백종에 수십억페지의 교과서와 참고도서들을 생산할수 있게 되였다.

문광수기사장은 《교육은 과학의 어머니라는 말이 있다. 이렇게 놓고볼 때 교육사업의 기본수단인 교과서와 참고도서들을 생산하는 우리 공장의 임무는 매우 중요하다. 공장앞에는 전반적생산공정들을 보다 현대화하는 한편 재자원화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도 적극 추진해야 할 과업이 나서고있다.》라고 말하였다.

글 본사기자 김성영
사진 본사기자 김성철

세공술로 이름난 공장

시대가 발전하는데 맞게 세공품의 질을 계속 높여 구매력을 올리려는것은 세공업체들이 내세우고있는 경영전략의 하나로 되고있다.

평양대성보석가공공장이 바로 그런 기업체들중의 하나라고 볼수 있다.

40여년의 력사를 가지고있는 공장은 나라의 금, 은세공과 보석가공을 대표하고있다.

공장은 수십명의 기능높은 세공사들과 수백명의 생산자들로 전문화되여있으며 생산되는 세공품들은 장식재료와 형태, 문양, 보석사용에 따라 그 가지수가 수백점에 달한다.

자동보석가공기를 비롯한 보석가공설비가 갖추어진 공장에서는 감람석, 인조보석(홍옥, 찌르콘) 등 여러 종류의 보석들을 원추, 타원, 물방울, 마키즈, 긴8각 등의 형태로 다양하게 가공함으로써 금, 은세공품(반지, 목걸이, 브로치 등)의 가치를 높여주고있다.

다양한 금, 은세공품들은 그 자체가 하나의 예술작품을 방불케 한다.

황의섭세공사는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 세공사들은 어찌 보면 인간들의 감정을 작품에 그려놓는 작가들과 류사하다는 생각이 든다. 그만큼 우리는 사람들의 기호와 취미를 이 두손놀림으로 귀금속들에 섬세하게 형상해내야 한다.》

그는 35년간을 세공사로 일해오고있는데 그의 뛰여난 세공술은 젊은 세공사들의 본보기로 되고있다.

세공품들은 금, 은의 순도를 정확히 보장하면서도 문양과 형태가 새롭고 세련되여 손님들의 신용을 담보하고있다.

지배인 김철은 《예로부터 우리 선조들이 창안하고 발전시킨 놋그릇제품들은 그 우수성으로 하여 당대에도 그러하였지만 오늘까지도 그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있다.》라고 말하였다.

신선로, 밥그릇, 국그릇, 수저, 장식주전자일식, 호박주전자일식, 쟁반 등 놋그릇제품들은 높은 광택도와 정교한 세공술뿐아니라 인체에 좋은 동을 함유하고있는것으로 하여 사람들속에서 관심을 모으고있다.

알려진바와 같이 동은 사람의 몸에 없어서는 안될 필수미량물질로서 세포의 파괴와 로화를 막으며 강한 살균작용을 한다.

이 사실은 사람들이 놋그릇제품들을 환영하는 까닭의 하나로 되고있다.

공장에서는 놋제품들의 변색을 막기 위한 기술을 도입하는 등 기술적난문제들을 해결해가고있다.

이 공장의 놋그릇제품들은 국내최우수제품들로 인정되였다.

공장에서는 놋그릇제품들만이 아니라 여러가지 놋공예품들도 생산하고있는데 장식적효과가 높아 구매자들의 시야를 넓혀주고있다.

이밖에도 연옥, 대리석, 사문석 등 매장량이 풍부한 국내의 돌들을 가공하여 참매, 북극곰, 말무리, 북극사슴, 금붕어 등 동물들을 형상한 돌장식공예품들은 금속공예품 못지 않게 그 수요가 높다고 한다.

공장에서 생산되는 《평양대성보석》제품들은 국내뿐아니라 국외에서도 자기의 지위를 뚜렷이 차지하고있다.

글 본사기자 김성경
사진 본사기자 김영호

생산된 제품을 놓고

세공품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있는 세공사들

부모형제가 되여

평양시 락랑구역 정오1동에서 사는 함정호는 9년전 군사임무수행중 부상당하여 고향으로 돌아왔다.

그는 조국해방전쟁시기(1950년-1953년)의 불발탄을 해제하다가 두팔을 잃은 영예군인이다.

그때로부터 오늘까지 그의 생활에서는 많은 일화가 생겨났다.

5년전 1월 눈내리는 어느날이였다. 한덕수평양경공업대학 원격교육학부 학부장과 교원들이 함정호의 집을 찾았다. 영예군인청년이 평시에 대학공부를 소원했다는것을 알고 그의 입학시험을 위해 걸음을 한것이였다. 불구의 몸으로 고민하던 자기를 꽉 안아주는 교원들의 진정어린 마음에 함정호는 뜨거운것을 삼키였다.

그때로부터 그의 집을 찾는 교원들의 발걸음은 잦아졌다. 그들은 어깨에 고정시킨 의수로 두시간이 걸려야 겨우 한페지를 타자하는 그를 위한 음성인식프로그람도 작성하여주었다. 때로는 그가 힘들어 나약해질세라 자신을 이겨내고 나라에 필요한 인재가 되여야 한다고 고무해주었다. 어느 한 교원은 뒤떨어진 학과목실력을 높여주기 위해 퇴근후 그의 집에서 이동강의를 하느라 종종 밤을 새웠다.

충혈진 교원들의 눈에서 그는 자기를 위해 애쓰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돌이켜보았다. 10여차례의 수술로 자기의 몸에서 많은 파편쪼각들을 찾아내고 마비된 신경계통들을 끌끌내 회복시켜준 평양의학대학병원 의사들, 명절마다 집에 찾아와 희열을 북돋아주는 조선체육대학의 학생들 그리고 자기가 섰던 초소의 명예초병으로 불러주며 삶의 의지를 더욱 굳혀주는 최전연의 대덕산초소 군인들…

그렇게 함정호와 친숙해진 사람들이 이제는 수십명이 된다고 한다.

오늘 그는 사람들모두가 화목하게 사는 고마운 이 사회를 위해 일하고저 락랑구역의 어느 한 단위에서 학습강사로 사업하고있다. 현재 그의 안해(김춘숙)가 남편의 두팔을 대신해주고있다.

그에게는 9살 난 딸이 있다.

글 본사기자 홍정혁
사진 본사기자 김성철

함정호

모녀우표애호가

안준옥과 그의 딸 엄유영

평양시 보통강구역 류경2동에서 살고있는 안준옥(49살)은 40여년간 우표수집을 해오고있는 녀성이다.

그의 딸 엄유영(16살)도 우표수집을 하고있는데 이들을 두고 사람들은 모녀우표애호가라고 부른다.

안준옥녀성이 우표수집을 하게 된데는 항일혁명투사인 그의 할아버지(안영)의 영향이 컸다고 한다.

어릴 때 그가 먼저 눈에 익힌것이 할아버지의 우표첩이였고 5살 잡히던 생일날 할아버지에게서 받은 첫 선물도 한장의 우표였다.

할아버지는 우표수집에 흥미를 가지고있었는데 까닭이 있었다.

해방전 편지를 부칠 때마다 자기 나라의 우표가 없어 일제의 우표를 사용해야만 하였던 민족적수치감이 할아버지의 가슴속에 상처로 응어리져있었던것이다.

그후 할아버지는 해방후 첫 조선우표들인 《무궁화》, 《삼선암》을 비롯하여 우표들을 하나하나 모아두군 하였으며 그것들을 매우 소중히 여기였다.

할아버지는 자식들에게 늘 이렇게 말하였다고 한다.

《보잘것 없는것이라도 모아두면 나라의 력사가 되고 귀중한 재보로 되는것이다.》

우표수집은 오늘 집안의 가업으로 되였으며 4대를 이어가며 계속되고있다.

안준옥녀성에게 있어 우표수집은 가장 큰 취미이며 굳어진 생활습관으로 되였다.

어릴 때부터 그는 우표수집에 남다른 취미를 가지고있었다.

집에 오는 편지만 보면 준옥은 우표를 떼서 간수하였으며 생일날 부모들이 옷을 사입으라고 준 돈으로 많은 우표를 사서 집안사람들을 아연케 하기도 하였다. 그의 취미를 아는 동네의 어른들은 편지가 오면 의례히 우표가 붙은 겉봉투를 준옥의 것으로 남겨놓았으며 동무들은 그의 생일이면 우표첩과 우표들을 특별히 선물하군 하였다.

흥미로 시작된 우표수집은 차츰 그에게 하나의 학문처럼 느껴졌다.

우표들이 늘어나고 그것들을 정리, 보존하는 과정에 그는 우표가 안고있는 지식의 방대함에 놀랐으며 우표수집에 심취되여갔다.

가정을 이룬 후에도 그의 수집활동은 계속되였다.

우표의 세부를 관찰하고있다.

어머니가 매일 아기의 얼굴을 보면서 즐거움을 찾듯이 수집가들도 우표를 매일 들여다보아야 마음이 즐거워지고 하루에 쌓인 피로가 가셔진다고 그는 이야기한다.

그는 수집한 우표들을 사회력사적으로 고찰하고 분류하면서 앞으로의 전시회에 참가할 우표주제방향도 선정하고 그에 대한 학술적인 변론을 세워보기도 한다.

조선우표애호가동맹 회원인 그는 해마다 국내에서 진행되는 조선우표전시회에서 매번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주체103(2014)년 9월 조선우표애호가동맹과 로씨야민족우표수집아까데미야의 공동주최로 진행된 조로우표수집전시회에 36개 판으로 출품된 그의 우표들은 자료들의 신빙성으로 하여 참관자들의 주목을 끌었었다.

딸 엄유영도 8살때부터 우표수집을 하고있는데 그때부터 모아둔 우표첩이 7개나 된다고 한다. 그는 지난해 조선우표애호가동맹 수집가로 정식 등록되였다. 엄유영은 앞으로의 전람회에 어머니와 함께 참가하기 위해 수집활동에 열중하고있다.

안준옥녀성은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 수집가들의 일이 우표만큼 작아보여도 조국의 력사와 문화, 시대정신을 후대들에게 물려주는 고상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글 본사기자 김성경
사진 본사기자 임정국

딸과 함께 조선우표박물관을 찾은 안준옥

오염이 없는 언어

- 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 소장 방정호와 본사기자의 대담 -

기자: 오늘 많은 민족어들이 인류사회로부터 멀어져가고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매 민족에게 있어서 심중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소장: 세계의 언어학자들은 최근년간 평균 두주일에 1개의 민족어가 사멸되고있는데 이것은 동식물의 멸종속도보다 더 빠르다는 견해를 발표하였습니다. 그들은 수천개의 언어중에서 40%이상이 사멸의 위기에 처해있다고 보고있습니다. 세계화와 피난민들이 다른 대륙에로의 대량적인 이주 등으로 민족어들이 오염되고 점차 사멸되는데 있다고 보아야 할것입니다.

기자: 현실은 언어생활에서 우리 말을 살려쓰는것이 민족성을 지키기 위한 선차적인 문제라는것을 보여주고있습니다. 언어는 민족을 특징짓는 공통성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징표의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피줄이 같고 한 령토안에서 살아도 언어가 다르면 한 민족이라고 말할수 없는것입니다.

소장: 그렇습니다. 언어는 민족의 형성발전과 더불어 완성되여왔으며 민족의 단결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이바지하여왔습니다. 그러므로 민족을 떠난 언어가 있을수 없듯이 언어가 없는 민족도 있을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어느 민족이나 자기의 넋과 정신이 깃든 언어를 사랑하고 귀중히 여기면서 그 순결성을 고수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있는것입니다.

기자: 우리 나라에서는 누구나 우리 말을 적극 살려쓰면서 언어생활에 우리것이 아닌 다른 나라 말이 섞이지 않고있다고 봅니다.

소장: 예. 건전한 언어생활기풍이 사회의 풍조로 되고있습니다. 보다 중요하게는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불건전하고 이색적인 언어요소들을 허용하지 않고 경계하여 우리 말의 순결성을 보장하고있습니다. 아무리 우수한 문자를 가지고있다고 해도 그것을 살려쓰지 않고 언어생활에 다른 말이 끼여든다면 언어의 오염을 막을수 없습니다. 제 나라, 제 민족의 고유한 말이 있는데 무엇때문에 다른 나라 말, 잡탕말을 쓰겠는가 하는것입니다.

기자: 조국을 방문하였던 해외동포들은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고유한 우리 말을 쓰는 현실을 보고 《언어가 오염되지 않은 곳》, 《순수한 우리 말을 들어보았다.》, 《정신도 몸도 정화되는 땅》이라고 자기의 심정을 표현하였습니다.

언어의 오염을 막는데서 우리 말, 조선어문자의 특징을 잘 아는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소장: 옳습니다. 조선어문자의 특징을 알아야 고유한 우리 말을 살려쓸수 있습니다. 그 특징을 본다면 첫째로 말소리가 풍부하며, 둘째로 어휘가 풍부하며 문법구조가 째인것입니다. 셋째로는 과학성과 편리성이 보장된것입니다. 즉 기본글자의 제작원리가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따서 과학적으로 이루어진 점, 기본글자로 점차 획을 더해주는 방법으로 다른 글자들이 정연하게 파생되여있는 점과 글자획이 간단하여 배우기 쉽고 쓰기도 편리한 점 등이 있습니다.

영국의 어느 한 음성언어학자는 조선어가 발음기관을 상형하여 글자를 만들었다는것도 독특하지만 기본글자에 획을 내는 방법은 대단히 체계적이고 훌륭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조선글은 새로운 높은 단계의 자질문자로 된다고 하였습니다.

유네스코에서는 말은 있지만 글이 없어 고생하는 소수민족들에게 전문가들을 파견하여 그들의 말을 조선글자로 표기하도록 하고있습니다.

그 어느 나라 말도 다 적을수 있고 인간의 감정정서를 방불히 표현할수 있는 문자를 가지고있는것은 민족의 긍지입니다.

기자: 좋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 * *

벼꽃을 사랑하는 로박사

후보원사 교수 박사 문정원

3년전 농업연구원 벼연구소 실장 교수 박사 문정원은 후보원사칭호를 받았다.

많은 후배들과 동료들이 그에게 향기그윽한 꽃다발을 안겨주며 축하해주었다.

《이 꽃들이 다 벼꽃이면 더 좋겠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 꽃들이 많아도 벼꽃을 제일 사랑합니다.》라고 문정원은 말하였다.

일흔을 넘긴 로인의 말은 나라의 농업발전에 바쳐온 그의 한생을 가늠하게 하였다. 그는 45년간을 우량벼품종육종과 연구사업에 고스란히 바치였다.

그가 육종한 우량벼품종들은 10여가지나 된다.

그는 해마다 암수가 서로 다른 천여개의 조합쌍을 묻고 여러 정보나 되는 육종선발포전에 한해 1만개가 훨씬 넘는 개체들을 심어놓고 관찰하면서 날과 달을 보냈다.

한번은 낮에 관찰하였던 시험계통에서 우량한 개체로 될 수 있는것을 스치였다는 생각이 나서 이른새벽 내의바람으로 달려나간적도 있었다.

《내의바람으로 포전에 달려나와 우량한 개체를 발견하였다고 소리치던 선생님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라고 연구소의 리승조실장은 말하였다.

땀흘린 노력이 있어 그는 정보당수확고를 높일수 있는 벼품종들을 련이어 육종해내였다.

이에 그치지 않고 그는 우리 나라의 각이한 생태지역들에서 주요벼품종들이 옹근소출을 낼수 있는 과학적인 비료주기방법을 찾는것을 새 연구과제로 삼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지대적특성과 자연기후조건이 서로 다른 전국의 수십개 조사지점들을 찾아 쉼없이 걷고 또 걸었으며 조사지점마다에서 매 품종의 생육단계에 따르는 객관적이며 과학적인 시험자료들을 수집하였다.

그는 수집한 자료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에 기초하여 주요벼품종들의 생육시기별비료주기를 과학화해놓았다.

그의 고심어린 연구성과들은 벼연구분야에서 뚜렷한 자욱을 남기였다.

농업연구분야에서 큰 역할을 한 그는 조선지식인대회를 비롯한 국가적으로 진행된 대회들에 대표로 참가하였다.

일본에서 사는 그의 친척들과 동료들은 55년전에 조국으로 간 문정원실장의 성공을 두고 기뻐하며 평양방문때마다 그를 찾는것을 잊지 않고있다.

축구, 정구, 노래 등 체육과 음악을 좋아하는 그의 여가시간은 매우 다양하게 흐르고있다.

그러나 벼꽃에 대한 사랑만은 식을줄을 몰라 그는 지금도 늘 실험실과 포전에 마음을 두고 산다.

본사기자 엄향심

살림집을 통해 보는 사회제도

사람이 살아가는데서 먹고 입는것과 함께 쓰고살 살림집은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지구상에 수백개의 국가가 존재하지만 살림집문제는 의연 심각한 문제로 나서고있다.

언제인가 로씨야의 한 인사는 우리 나라 방문소감에 대해 《조선에서 보고 듣는 모든것이 상상을 초월한다. 특히 국가가 인민들에게 살림집을 무상으로 제공하고있다니 정말 믿어지지 않는다. 당과 국가가 근로자들에게 훌륭한 생활조건을 마련해 주는 나라는 조선밖에 없다.》라고 피력하였다.

새로 일떠선 수도의 거리마다
인민의 행복 넘쳐난다.
주체107(2018)년 촬영

조국에서는 해방후부터 지금까지 인민을 위한 살림집건설을 선차적인 사업으로 내세우고 그 실현을 위한 사업을 줄기차게 벌려왔다. 하여 나라의 기후풍토에 어울리고 인민들의 고유한 정서와 민족적인 구미, 현대적인 미감에 맞는 살림집들이 도시와 농촌 그 어디에나 일떠서고있다.

시대의 변천에 따라 내용과 형식도 끊임없이 개선되고 있다.

최근년간 조국에서는 창전거리와 은하과학자거리, 미래과학자거리, 려명거리를 비롯한 현대미를 갖춘 거리들이 거의 1년에 하나씩 건설되여 사람들이 무상으로 살림집을 받았다. 삼지연시가 산간문화도시로 전변되고 평안남도와 평안북도, 자강도 등에서 살림집건설이 추진되였다.

몇년전 라선시큰물피해와 북부지역이 대재앙을 당하였을 때에도 그러하였지만 지난해에 황해북도와 강원도, 함경남북도

등에서 큰물로 인민들이 한지에 나앉았을 때에도 조국은 살림집건설을 선행시켜 재해지역 인민들이 하루라도 빨리 새 집에 보금자리를 펴도록 하였다.

그러나 일부 나라들에서는 광범한 근로대중이 집이 없이 고통속에 살아가고있는것을 볼수 있다.

돈이 없으면 단 한순간도 살아갈수 없는 그들은 거액에 달하는 집값을 마련할수 없어 세집에서, 집아닌 집에서, 지어 로숙하면서 간신히 연명해가고 있다.

어느 한 나라의 신문이 밝힌데 의하면 그 나라에서는 집없는 사람들의 수가 적어도 수십만명에 달한다고 한다.

그런데로부터 집이 없이 한지에서 생활하다가 사망하는 사람들이 늘어나 심각한 사회적문제로 제기되고있다.

어느 한 나라에 있는 국회의사당근처의 지하철도역입구에서는 얼어죽은 사람의 시체가 발견되기까지 하였다. 사망자는 집이 없어 지하철도역에서 밤을 보내군 하던 사람이였다고 한다.

제 집이 없이 한지에서 날을 맞고보내야 하는것도 고달픈것인데 여기저기 쫓겨다니고 심지어 폭력행위의 희생물이 되기까지 하여 집없는 사람들의 설음은 커만가고있다.

어느 한 나라의 지방도시에서는 집없는 사람들이 공원을 비롯한 공공장소들에서 잠을 자는것을 금지한다고 선포하였다.

결국 발붙일래야 발붙일 곳이 도저히 없게 된 많은 류랑민들이 다른 지역으로 밀려들어 커다란 사회적골치거리로 되고있다.

이처럼 살림집문제 하나만 놓고서도 사회의 본질적차이를 잘 알수 있게 한다.

글 본사기자 강경수
사진 본사기자 김성철
강진성

피해지역들에 새집들이경사가 났다. 주체109(2020)년 촬영

잊지 못할 길림사람들

주체101(2012)년 촬영

해마다 4월이 오면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동상이 모셔져있는 만수대언덕에 꽃들이 활짝 피여난다. 그 꽃들중에는 9년전 재중동포들이 항일선렬들의 피어린 발자취가 어려있는 삼도만(중국)의 생눈길을 헤치며 떠온 진달래도 있다. 그 나무들을 만수대언덕에 정히 심은 동포들가운데는 길림성에서 사는 동포들도 있었다.

돌이켜보면 지금까지 조국을 위해 자신들의 지성을 다해온 길림의 동포들이다.

우리의 취재수첩을 펼쳐보느라면 성의있는 지원물자들을 안고와 미래과학자거리며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의 건설자들을 고무해준 그들의 모습이 어리여온다. 그리고 명절때면 품들여 준비한 노래와 춤을 안고와 조국인민들과 기쁨을 함께 나누며 애국의 마음을 바쳐가던 그들의 모습이 되새겨진다. 고령에도 백두산에 올라 람홍색공화국기발을 휘날리며 조국에 대한 이름 못할 격정을 터치던 그들이다.

지금도 조국방문의 나날 《우리는 길림사람 재중동포들》이라고 절절히 노래부르던 그들의 목소리가 우리의 귀전에 들려오는것만 같다.

황진생동포는 이렇게 말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서 자신의 일생에서 길림은 참으로 잊을수 없는 추억을 남긴 고장이라고, 길림시절에 자신의 세계관이 확립되였다고 회고하시였습니다. 이렇듯 뜻깊은 고장에서 사는 우리는 자나깨나 길림사람답게 그이의 업적을 길이 빛내이고 조국을 위해 참되게 살려는 생각뿐입니다.》

황진생, 홍영순, 김명희, 김대옥, 윤성옥, 박금순, 김애신, 최영자, 태순련동포들은 광동성을 비롯한 수천수만리 떨어진 곳을 찾아다니며 제일 좋은 재료들을 구하여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적이 깃든 길림육문중학교와 북산공원 약왕묘지하실의 사판을 만들어 조국에 선물하였다. 안도현의 기업가인 변성술동포는 위대한 수령님의 일가분들의 사적이 깃든 소사하를 자주 찾으며 새 세대 동포들에게 애국애족의 넋을 심어주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적이 깃든 길림땅에서 사는 궁지를 안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이의 동상이 모셔져있는 길림육문중학교를 정성껏 관리해오는 길림의 동포들, 해마다 4월이면 손에손에 꽃묶음을 안고 모여 다채로운 행사로 태양절을 뜻깊게 경축하는 그들…

세월은 흘러도 그들의 애국의 마음은 조국땅에 심은 진달래꽃처럼 대를 이어 더욱 활짝 피여나고있다.

글 본사기자 조선일
사진 본사기자 김영호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이 모셔진 만수대언덕에 중국의 삼도만에서 떠온 진달래를 심고있는 재중동포들 주체101(2012)년 촬영

조국의 소식을 듣고있는 길림시지부 성원들 주체98(2009)년 촬영

새 세대들에게 길림육문중학교에 깃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적에 대하여 해설하고있는 황진생(오른쪽에서 두번째) 주체107(2018)년 촬영

이역에서 울려나오는 두 목소리

새로운 년대에 들어선 지금도 지구의 서반구에서는 《북의 인권상황》에 대한 궤변들이 계속 되풀이되고있다.

그 진실여부를 두고 다른 목소리도 울리고있다. 아래에 서방에서 사는 동포들의 조국방문 소감을 싣는다.

《한생을 두고 북을 좋지 않게 보아왔다.》고 말한적 있는 재미동포 권대혁은 《내가 본 평양》이라는 글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

《비행기에서 내리기 전까지만 해도 북에 대한 나의 표상은 서방언론들이 귀따갑게 외워댄 <기아>와 <빈궁> 그자체였다. 그러나… 평양의 거리와 마을들에는 생의 활력과 랑만에 넘쳐 활보하는 북주민들의 모습이 비껴왔다.

북에서 창전거리라 일컫는 초고층호화주택구역의 어느 한 집을 찾았을 때 그 집 주부는 무상으로 받은 자기 집의 값도 세금도 모르고 살고있었다. 그 집 세대주는 평양양말공장 현장 기사였고 내가 만났던 주부도 어느 한 공장의 로동자였다.》

계속하여 그는 서방에서는 설사 집이 있다고 해도 수십종이 넘는 엄청난 값의 가렴잡세로 인하여 인차 한지에 나앉는 사람들의 수가 부지기수라고 썼다.

두해전에 발표된 재카나다동포 김수백의 글 《북을 알면 미래가 보인다》의 한 부분이 돌이켜진다. 그는 적대세력의 봉쇄와 압박, 제재가 가혹해져도 북에서는 변함없이 인민과 후대들을 위한 정책과 시책들이 실시되고있다, 문수물놀이장, 마식령스키장, 미림승마구락부, 평양국제비행장, 려명거리 등은 인민들이 문명을 높은 수준에서 누리도록 하기 위한 창조물들이다고 썼다.

미국에서 사는 리경실동포의 글도 주목된다.

《나는 언제인가 주조 세계보건기구 대표에게서 <보건제도, 보건체계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만큼 째인 나라는 없다.>라는 말을 들은적이 있다.

1950년대초 조선전쟁이 한창이던 때 무상치료제를 실시하고 그후 국가가 예방치료까지 떠안았다는것은 손익계산법의 기준이 철저히 인민이라는것을 실증해주고있다. 서방이 <인권문제>를 놓고 공화국에 대한 험담을 늘어놓고있는것은 지구상에서 치료비없이 생명을 담보해주는 진정한 인권보호국을 말살하기 위한 유치한 행위로 보는것이 틀리지 않을것이다.》

그러면서 평양산원 유선종양연구소에서 북의 녀성들은 설비 하나값만 해도 고급승용차 몇십대값과 맞먹는 값비싼 의료설비들을 무상으로 리용하고있다고 놀라움을 표시하였다.

한편 재미동포 신강국은 외진 섬에도 단 한명의 학생을 위해 분교가 서고 선생이 찾아가는 나라, 후대들에 대한 사랑을 당과 국가의 제일중대사로 내세우는 나라가 바로 공화국이라고 말하였다.

재도이칠란드동포 유진미는 조국에서 자기와 동행한 안내원 선생도 국가의 무료교육혜택속에 자식들을 공부시키면서 자식들이 나라에서 받아안는 새 교복과 학용품의 값조차 모르고있다, 서방의 언론들이 그처럼 인이 배기도록 떠들어댄 북의 <렬악한 인권상황>이란 도무지 찾아볼수 없다고 인터네트에 글을 실었다.

이러한 목소리는 《서방에서 말하는 북은 택시도 없고 침울한 풍경으로 그늘진 나라이지만 실지 와보면 인권의 모델국》이라고 한 미국의 홍경준동포, 《북부조국은 실업을 모르는 나라, 에덴동산》이라고 엄지손가락을 흔들던 카나다의 김경란동포 등 많은 해외동포들속에서 울려나오고있다.

재미자주사상연구소 소장 김현환동포는 《조선-하나의 대가정》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

《어천만사에 인민의 리익을 첫자리에 놓는 <이민위천>의 사상은 이북 력대 수령들의 지론이고 좌우명이다.

북은 분명 누구나 본받아야 할 인민의 지상천국이다. 북에 대한 극단적, 편파적인식은 진실의 밝은 빛에 의해 반드시 허물어질것이다.》

조선속담에 백번 듣는것보다 한번 보는것이 낫다는 말이 있다. 조선에 대한 서방의 진실여부를 가려보게 하는 말이라고 본다.

본사기자 홍정혁

사 화

화약무기제작과 진포해전

14세기 후반기 고려는 가장 간고한 형편에서 왜구와 힘겨운 싸움을 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당시 왜구의 침습은 대규모적이였으며 연안뿐아니라 내륙에까지 침입하여 개경으로 향하는 조운선(조세미를 실어나르는 배)을 모조리 략탈하는 정도로 험악했다.

왜구의 발길이 미친 모든 고장이 쑥밭으로 변하였으며 배길은 막히여 개경의 식량창고는 텅 비게 되였다.

이러한 사정은 왜구를 륙지에서뿐아니라 해상에서도 격멸할 방책을 시급히 강구할것을 요구하였다. 그 방책은 강력한 함대를 건설하는것이였다. 하지만 조정내의 근시안적인 대신들은 이에 찬동하지 않았다.

이러한 때 화약과 화약무기를 창제하고 그것을 리용하여 왜구를 격멸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최무선이였다.

왜구의 침습으로 인한 나라의 피해와 백성들의 불행을 목격하면서 자란 최무선은 어떻게 하면 왜구를 격멸소탕할것인가 하는 생각이 머리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바다로 침입하는 왜구를 전멸시키자면 화공을 써서 적선을 몽땅 불살라야 한다. 그러면 다리를 잃은 적들은 다시는 침습하지 못할것이고 물에 상륙한 적들은 독안에 든 쥐의 신세가 되고말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최무선은 먼저 배를 불살라버리는데 쓰일 화약을 얻어내기 위한 염초제조법을 연구하기 시작하였다.

그는 재간있는 사람들을 동원하여 실험 및 제조기구를 갖추어놓고 긴장한 실험의 나날을 보내고 또 보내였다. 이렇게 하여 1373년 10월 그는 드디여 염초를 만들어냈으며 염초를 주원료로 하는 화약제조방법에 성공하였다.

최무선은 곧 화약의 유리성을 정부에 보고하는 동시에 화약과 화약무기를 많이 만들어 왜구를 쳐부실것을 제의하였다. 하지만 무능한 일부 관리들은 어리석게도 그의 제의를 반대하였다.

최무선은 실지 화약의 위력을 시위한 후에야 관리들을 납득시킬수 있었다.

이때 화약무기제작과 그것을 장치할 함선제조를 적극 도와나선 사람이 최영장군이였다.

그의 도움으로 최무선은 대장군포, 이장군포 등의 각이한 포들과 화전, 철령전, 피령전, 철탄자, 류화, 주화 등 여러가지 포탄들과 불화살을 만들어낼수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포들과 포탄, 불화살들을 구비할수 있는 견고한 전함 130여척도 건조하여 강어구에 배치하였다.

1380년 해도도통사가 되여 전국의 수군을 총지휘하게 된 최영은 화약무기로 장비한 전함을 실전에서 시험해보려고 벼르고있었다.

그러던중 왜구가 500여척의 대선단을 끌고들어와 금강하구에 배를 댄 후 전라도의 여러 수군진영을 로략질하고있다는 급보를 받은 고려수군은 100척의 전함으로 급히 출동하게 되였다.

이윽고 배가 목적지인 전라도 진포에 접근하게 되자 최무선의 얼굴에는 류달리 심각한 표정이 어리였다. 그것은 다년간 고심끝에 만든 화약무기를 처음 사용하게 될 시각이 다가오고있기때문이였다.

고려함대는 왜구의 배를 향하여 돌진하였다. 적들은 여러개의 선단으로 고려함대를 포위하려고 하였다.

그 순간 고려함선들은 일제히 포문을 열고 맹렬한 화포사격을 들이댔다. 철탄자와 철령전이 적선의 돛대와 갑판을 박살내고 화전과 주화가 불을 뿜으며 명중하자 배들은 일시에 불이 붙어 짙은 연기와 불길에 휩싸였다.

적들은 불에 타죽거나 물에 빠져 죽은자가 태반이였다.

사태가 급함을 알아차린 적들은 배머리를 돌려 도망치기 시작하였다.

이때를 기다리던 고려함선들은 일제히 총공격을 개시하였다. 용감한 수군들은 비호같이 적선에 뛰여올라 적들에게 무리죽음을 안겼다.

이리하여 500여척의 적선은 크게 저항도 해보지 못하고 고려수군의 위력한 화약무기앞에 여지없이 녹아나고말았다.

이것이 화약무기를 처음으로 써서 왜구를 격멸한 유명한 진포해전이였다.

* * *

4월의 절기와 민속

음력 3월에 해당되는 4월의 절기에는 청명과 곡우가 있다.

청명은 하늘이 점차 맑아지는 때라는 뜻으로 4월 4~5일에, 곡우는 곡식이 자라는데 유익한 비가 내린다는 뜻으로 4월 20~21일에 든다.

우리 선조들은 청명을 맞으며 겨우내 가보지 못한 조상의 묘를 찾아가 무덤을 손질하고 제를 지냈다.

그리고 청명, 곡우를 전후한 시기에 농사의 씨붙임에 달라붙었다.

망차기

어린이들은 이 계절에 여러가지 민속놀이를 하였다. 그가운데는 줄을 가지고 노는 줄넘기, 두다리사이에 회초리를 끼우고 달리기를 하는 대말타기, 땅우에 일정한 모양의 도형을 그려놓고 얄팍한 돌 같은것을 한발로 뛰면서 차몰아가는 망차기 등이 있다.

이 시기에 우리 선조들은 바다와 강, 호수들에서 물고기를 잡아 여러가지 료리를 만들었다. 특히 평안도의 조기국과 조기자반, 황해도의 조기구이, 평양의 잉어국과 잉어회, 강원도의 문어회는 맛있는 특식으로, 건강음식으로 널리 알려졌다.

본사기자 연 옥

잉어탕

잉어회

유모아

고지식한 사람

어느 한 박물관에 새로 온 경비원은 그곳의 규정을 모두 통달했다.

하루는 이런 일이 있었다.

경비원: 《손님, 우산을 접수실에 놓고야 들어갈수 있습니다.》

손님: 《나는 우산을 가지고오지 않았습니다.》

경비원: 《그렇다면 빨리 돌아가서 우산을 가져오십시오. 박물관규정에는 <우산을 접수실에 놓지 않은 사람은 들여놓지 않는다.>고 되여있습니다.》

* * *

지명유래

평안북도의 일부 지명들 (1)

평안북도는 조국의 북서부에 위치하고있는 도이다.

평안북도에는 세계적인 명승지로 널리 알려진 묘향산과 관서8경의 하나인 녕변의 약산동대, 의주의 통군정, 동림폭포 그리고 지하명승으로 알려진 백령대굴과 룡문대굴이 있다.

우리 나라 최초의 노예소유자국가인 단군조선(고조선)의 령토였던 평안북도는 그후 고구려, 발해의 령역에 속해있었다.

조선봉건왕조시기에 지방행정체계를 8개 도로 고칠 때 오늘의 평안북도는 평양시, 평안남도, 자강도, 남포시와 함께 관서지방으로 불리웠다. 관서지방은 청천강을 기준으로 하여 그 북쪽지역은 청북지방, 남쪽지역은 청남지방으로 불리웠다. 이때 평안북도는 청북지방에 속하였다.

평안북도의 자랑중에서 먼저 꼽는것은 묘향산이다. 묘향산이라는 이름은 기묘하고 향기를 풍기는 아름다운 산이라는 뜻에서 불리워졌다.

그전에는 연주고을(녕변)에 속해있는 산이라는 뜻에서 《연주산》이라고도 하였는데 이 《연주》라는 이름은 청천강을 건너오는 사람을 맞이하고 바래주는 고을이라는 뜻에서 유래되였다.

약산동대는 녕변읍에서 서쪽으로 2km 떨어진 구룡강연안에 솟아있다.

약산동대는 제일봉, 동대, 학벼루를 비롯한 명소들로 이루어졌으며 이것을 통털어 약산이라고 한다.

약산이란 이름은 이 산에 약초가 많고 약수가 난다는데로부터 생겨났으며 동대라는 이름은 동쪽에 있는 대라는 뜻에서 불리워진것이라고 한다.

통군정은 의주군 의주읍에 있는 루정으로서 우리 나라 루정건축술을 보여주는 귀중한 유산이다. 통군정은 의주성에서 제일 높은 북쪽 삼각산봉우리에 위치하여 그밑의 압록강과 근방일대를 내다보면서 군사지휘를 하기 좋게 되여있다. 그런데로부터 루정에는 선조들의 반외세투쟁력사가 깃들어있다.

동림군 고군영리의 북서부 태봉 남쪽골짜기에 있는 높이 5m되는 동림폭포는 물이 맑고 구슬같이 떨어진다고 하여 《옥포》라고도 한다. 동림폭포는 규모는 크지 않으나 예로부터 관서8경의 하나로, 물맞이폭포로 널리 알려졌다.

지하명승으로 불리우는 백령대굴과 룡문대굴은 구장군 백령천남쪽에 있는 석회암동굴들이다. 특히 룡문대굴은 우리 나라 석회암동굴가운데서 규모가 대단히 큰 동굴이다.

《백령》은 지난날 이 고장에 있던 면이름이다. 희게 보이는 령이라는 뜻인데 옛날 이곳 사람들은 이 령을 넘어야 다른 고장으로 갈수 있었다고 한다. 《룡문》은 룡의 문이라는 뜻을 담고있다.

백령대굴과 룡문대굴은 오랜 세월 땅속의 석회암층에 대한 지하수의 용해, 용식작용에 의해 형성된 천태만상의 만물상을 보여주는 희귀한 천연동굴이다.

사회과학원 연구사 최미영

상 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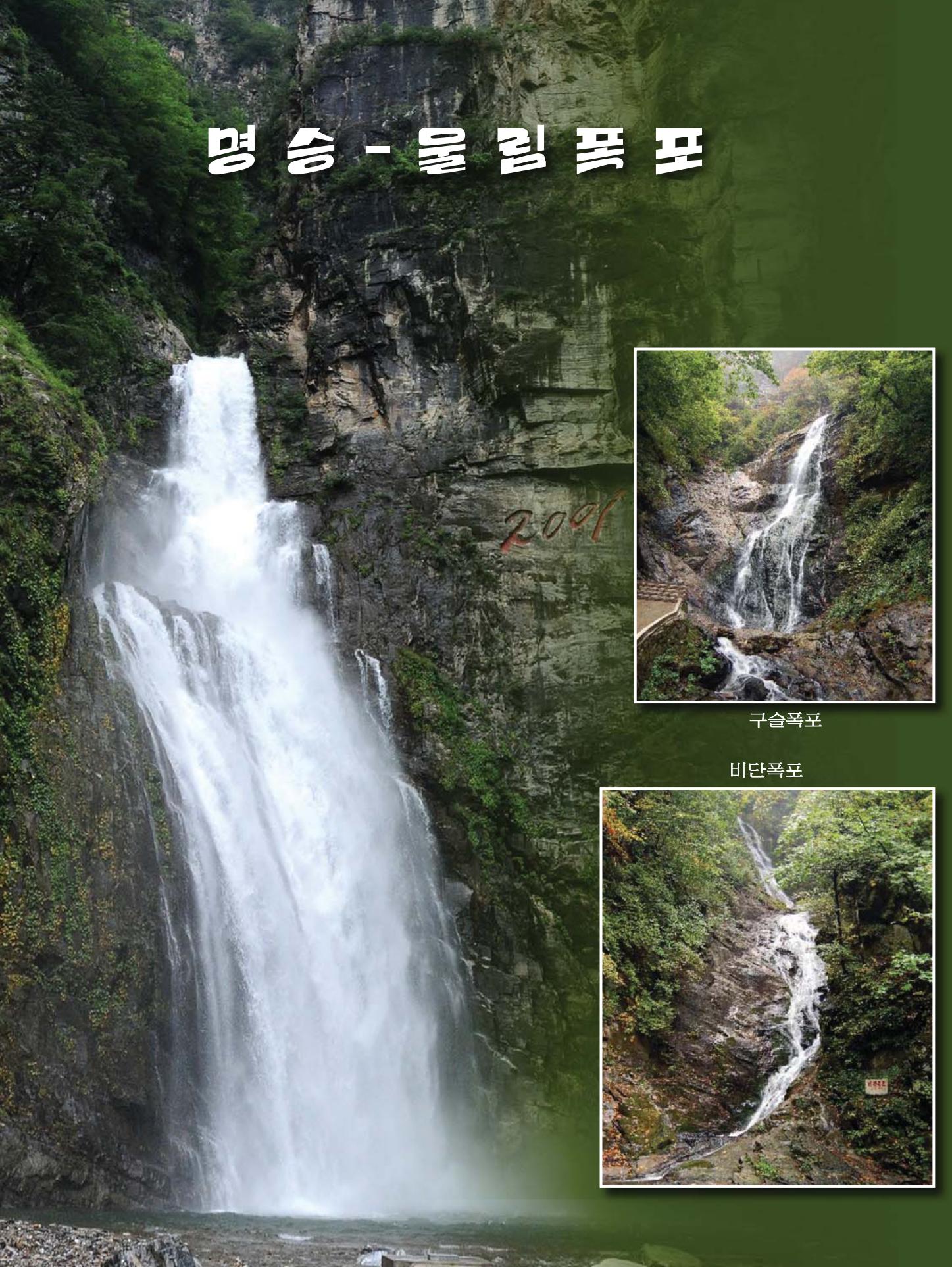
활 쏘 기

활쏘기는 우리 선조들이 가장 즐겨온 놀이의 하나이다.

활쏘기에는 여러가지 규칙과 절차가 있으나 기본은 화살을 목표물에 맞히는것이다.

활쏘기에 대한 생동한 모습을 보여주는 그림이 오랜 세월 보존되여오는 고구려시기의 덕흥리벽화무덤에 있다.

이 그림에는 긴 말뚝 5개에 목표물을 세워놓고 경기참가자들이 말을 타고 활쏘기경기를 하는 장면이 그려져있다. 그리고 한옆에는 두명의 심판원과 한명의 기록원이 서있는 모습이 있다.

활쏘기는 고구려시기뿐아니라 그 이후에도 많이 하였다. 그 과정에 활제작기술이 발전하였다.

《삼국사기》에는 당나라의 사신이 천보노(천보까지 쏘는 기계활)를 잘 만드는 기술자를 초청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선조들은 예로부터 활을 잘 쏘는 사람을 주몽으로 부르고 그에 대한 이야기를 널리 전하였다. 오늘까지도 전해지고있는 고구려의 시조왕인 고주몽에 대한 이야기가 그 대표적실례이다.

* * *

명승 - 울림폭포

울림폭포는 강원도 천내군에 위치하고있다.

2단으로 되여있는 울림폭포는 높이가 75m로서 조국에서 손꼽히는 폭포중의 하나이다.

폭포의 이름은 장엄한 폭포소리가 온 골안을 울리며 멀리로 메아리쳐간다고 하여 울림폭포로 불러왔다.

울림폭포는 폭포의 밑기반을 이루는 탄산염암석이 발달하였던 지하동굴이 무너져 생긴 협곡에 있다. 울림폭포는 바로 이 좁고 깊은 협곡우에 많은 물량이 결합하여 장쾌한 폭포경관을 이루게 되였다. 아찔하게 솟은 벼랑짬에서 폭포가 쏟아져내리는것이 마치 굴속에서 나오는것처럼 보이는데 사철 물이 마르지 않는다. 특히 장마철에는 초당 20~25m³의 물이 쏟아져내리는데 그때의 경치는 더욱 장쾌하다.

폭포밑에는 깊이가 1.5m이고 반경이 30m인 소가 있으며 여기에서 칠색송어와 버들치를 비롯한 여러 종류의 물고기들이 살고있다.

이뿐이 아니다.

울림폭포의 맞은편 골짜기에 있는 구슬폭포와 비단폭포, 6담은 그 절묘함과 아름다움으로 하여 자랑할만 한 명소이다.

구슬폭포

비단폭포

*　　*　　*

강원도의 력사유적을 찾아서 (11)

- 주둔리무지개다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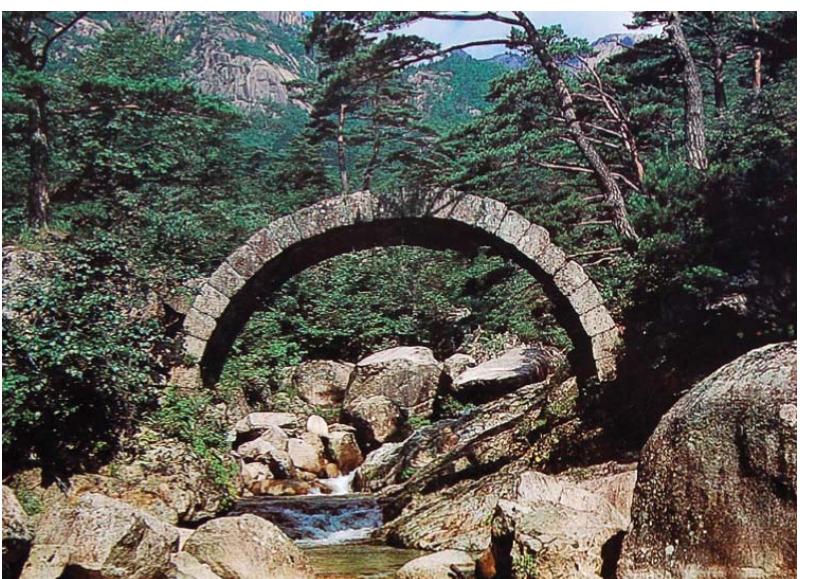
주둔리무지개다리는 강원도 고성군 주둔리에 있는 고려시기의 력사유적이다.

다리는 외금강의 명소인 발연소(바리소)에서 조금 올라가 골짜기를 남북으로 건너질러있다. 다리에서 오른쪽골짜기로 약 200m 올라가면 발연사터가 있다.

다리에는 지금 량쪽의 암반을 약간 다스리고 그우에 쌓은 무지개교각만 남아있다. 이 무지개교각은 반경 약 4.3m인 원의 반쪽에 해당한다.

무지개교각은 제형장대돌들을 무지개모양으로 26돌기 맞물려 쌓았는데 그 너비는 3.1m이다.

지금은 북쪽부분에서 일부 돌들이 떨어져나갔지만 그 원래의 상태를 유지하고있다.

돌부재의 두께는 55㎝, 웃너비는 48~50㎝정도이다.

무지개교각에 쓴 부채형단면의 돌은 원의 둘레를 일정한 간격으로 등분하고 그 등분점들을 원의 중심에 련결하는 방법으로 구도하였다고 볼수 있다.

돌은 외부에 로출되는 밑면은 반듯하게 다듬고 구조물속에 묻히는 웃면은 거칠게 다듬었다.

다리에서 골짜기를 따라 북쪽으로 올라가면 돌을 채취하던 장소가 있다.

주둔리무지개다리는 비록 보존상태가 좋지 못하지만 지금 남아있는것만으로도 고려시기 건축술의 높은 수준을 잘 알수 있다.

*　　*　　*

조국의 각 도 특산물들 (25)

황해남도의 특산 - 해주비빔밥

황해남도의 특산들중에는 해주의 이름난 음식의 하나인 해주비빔밥도 있다.

해주비빔밥을 해주교반, 골동반이라고도 부른다.

해주비빔밥은 지은 밥우에 여러가지 나물, 고기볶음을 비롯한 꾸미, 고명을 보기 좋게 놓아 버무려 먹는 밥이다.

조선봉건왕조시기 문헌기록인 《해동죽지》에는 해주비빔밥이 양념, 고명, 조리가 나무랄데 없는 훌륭한 음식이라고 씌여져있다.

해주비빔밥은 다른 지방의 비빔밥과 비슷한데 비빔감으로 나물이나 고기외에 반드시 좌양산고사리와 해주의 명물인 김을 구워서 부스러뜨려 섞는것이 특징이였다.

만드는 방법을 보면 밥은 되직하게 짓고 닭고기는 삶아서 가늘게 찢는다. 록두나물, 미나리는 살짝 데쳐서 무치고 콩나물은 볶는다. 고사리와 도라지는 삶아 우린 다음 가늘게 찢으며 버섯은 불구었다가 찢어서 볶는다. 단 남비에 기름을 두고 양념에 재운 돼지고기를 볶는다. 여기에 밥을 두고 볶다가 소금으로 간을 맞춘 다음 다시 볶아서 그릇에 담는다. 다음 밥우에 닭고기, 나물, 실닭알, 구운 김을 놓아 완성한다.

사회과학원 연구사 고주일

상식

대 동 문

대동문은 6세기 중엽 평양성 내성의 동쪽에 세운 성문이다.

대동문은 화강석을 정교하게 다듬어 쌓은 축대와 그우에 세운 웅장한 문루로 이루어졌다.

이 성문은 평양의 성문들가운데서 제일 중요하고 큰 문이였다.

문의 높이는 19m이다. 축대의 규모는 길이 26.3m, 너비 14.25m, 높이 6.5m이다.

축대의 가운데부분에는 무지개문길이 있다.

축대우에 세운 2층문루는 합각집으로서 축대의 규모와 잘 어울리며 장중하고도 위엄이 있어보인다.

문루에는 《읍호루》와 《대동문》이라는 현판이 걸려있다. 읍호루란 문루에서 손을 드리워 대동강의 맑은 물을 퍼올릴수 있다는 뜻으로서 이곳의 아름다운 자연풍경을 반영하고있다.

대동문의 합각지붕은 그 어디서 보나 부드럽고 우아한 곡선을 이루고있다.

기둥에는 붉은색을 칠하고 대들보, 서까래 등에는 여러가지 무늬와 색갈을 배합한 은근한 단청을 입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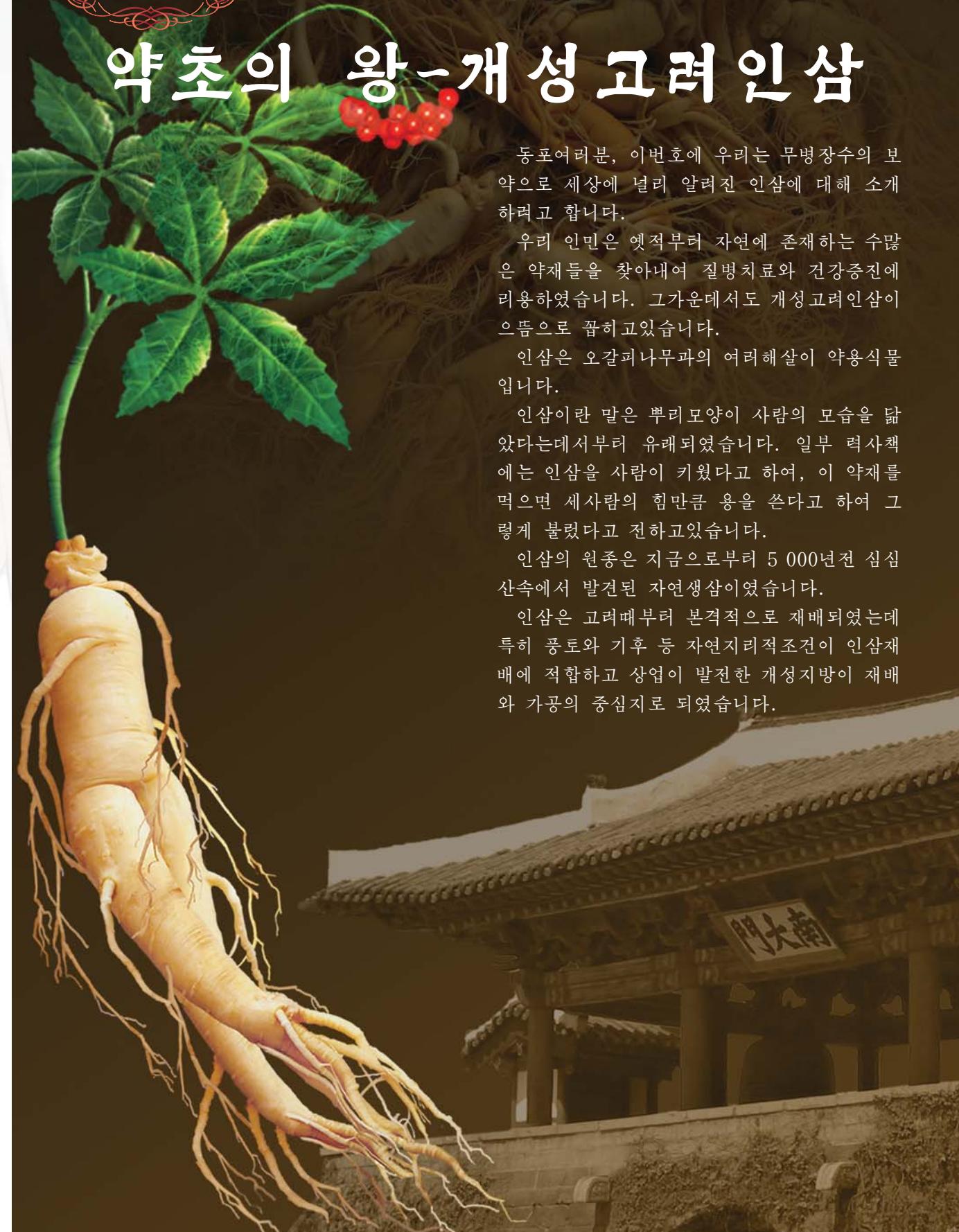
대동문에는 외래침략자들을 반대하여 싸운 우리 인민들의 투쟁이야기가 깃들어있다.

오늘 대동문은 그 주변의 평양종, 련광정 등과 더불어 수도 평양의 력사를 전하고있다.

*　　*　　*

민족의 향기

약초의 왕-개성고려인삼

동포여러분, 이번호에 우리는 무병장수의 보약으로 세상에 널리 알려진 인삼에 대해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 인민은 옛적부터 자연에 존재하는 수많은 약재들을 찾아내여 질병치료와 건강증진에 리용하였습니다. 그가운데서도 개성고려인삼이 으뜸으로 꼽히고있습니다.

인삼은 오갈피나무과의 여러해살이 약용식물입니다.

인삼이란 말은 뿌리모양이 사람의 모습을 닮았다는데서부터 유래되였습니다. 일부 력사책에는 인삼을 사람이 키웠다고 하여, 이 약재를 먹으면 세사람의 힘만큼 용을 쓴다고 하여 그렇게 불렀다고 전하고있습니다.

인삼의 원종은 지금으로부터 5 000년전 심심산속에서 발견된 자연생삼이였습니다.

인삼은 고려때부터 본격적으로 재배되였는데 특히 풍토와 기후 등 자연지리적조건이 인삼재배에 적합하고 상업이 발전한 개성지방이 재배와 가공의 중심지로 되였습니다.

예로부터 인삼을 가꾸기보다는 큰 호랑이를 길들이는것이 더 낫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선조들은 인삼의 생육조건이 매우 까다로운것으로 하여 재배경험을 쌓는데 퍼그나 많은 품과 시간을 들이였다고 합니다.

인삼은 강장, 면역기능항진, 중추신경계통과 조혈기능강화, 음식물의 소화 및 흡수기능강화 등의 작용을 하며 단백질과 지방산의 생합성을 촉진시키고 혈당량을 낮추며 열물분비를 촉진시키는 등 물질대사에 좋은 영향을 줍니다. 그외에도 인삼정유, 필수아미노산류, 각종 비타민류, 광물질을 비롯하여 생체기능조절과 로화방지, 생체방어능력과 정신육체적활동능력을 비상히 높여주는 각종 약효성분이 있습니다.

인삼은 몸이 허약한데, 병의 회복기, 앓고난 뒤, 육체적 및 정신적피로 등에 보약으로 쓰며 입맛이 없고 소화가 안되며 설사하는데, 만성위염, 허탈증, 당뇨병, 가슴두근거림, 잠장애, 저혈압, 성기능장애, 빈혈, 광선병, 간염 등에 씁니다. 최근에는 항암약으로도 쓰이고있습니다. 잎, 줄기, 씨도 인삼과 같은 목적에 쓸수 있습니다.

조선봉건왕조초시기인 1445년에 편찬된 《의방류취》에는 31 445건의 처방이 실렸는데 그중 인삼이 들어간것이 5 147건이였습니다. 인삼이 처방이름으로 된것만도 인삼탕, 인삼알약, 인삼정액, 인삼차, 인삼죽을 비롯하여 115건에 달하였습니다.

17세기초(1611년)에는 《동의보감》(25권)이 집필되였는데 총 4 479건의 처방중 인삼처방수는 52건이며 인삼이 포함되여있는 처방은 562건입니다.

인삼은 점차 세계각국의 사람들에게 그 효능이 알려지게 되였고 병마를 물리치게 하는 《불사약》으로 알려지게 되였습니다.

1754년 세계식물분류학의 이름있는 학자인 칼린네는 인삼의 학명을 라틴어로 만병통치약이라는 뜻으로 명명하였습니다.

주체99(2010)년 7월 세계식품 및 약품학회에서는 인삼을 식품원료로 발표하였습니다.

이것은 인삼에 대한 대중적요구가 그만큼 높아졌다는것을 보여주고있습니다.

조국에서는 인삼가공기술을 발전시켜 약품으로서만이 아니라 식품으로서의 리용범위를 넓히기 위한 사업이 확대되고있습니다.

뿐만아니라 개성고려인삼에 대한 연구가 보다 학술적으로 체계화되여가고있습니다.

개성고려인삼은 항로화, 항피로확산원소들의 함량이 높으며 특히 항암효과와 항방사선효과가 특이하고 뚜렷하여 날이 갈수록 세인의 이목을 끌고있습니다.

개성고려인삼은 40여종의 인삼사포닌배당체를 가지고있는데 모든 사포닌배당체들이 조화롭게 들어있다는것이 다른 종류의 인삼들과 차이나는 점입니다.

조국의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에서는 개성지방에 대규모의 인삼생산기지와 GMP기준에 부합되는 현대적인 공정들과 설비들이 갖추어진 전문적인 인삼가공공장을 두고 효능이 높은 50여가지의 제품들을 생산하여 국내는 물론 세계 여러 나라에도 다량적으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오랜 력사와 더불어 장생불로약으로 사람들과 매우 친숙해진 생명의 뿌리, 약초의 왕인 개성고려인삼은 과학과 기술이 발전한 오늘날에도 천연건강식품으로, 약용식물로 첫손가락에 꼽히고있습니다.

동포여러분, 조국의 기름진 토양과 맑은 공기속에서 깨끗한 물을 빨며 자란 개성고려인삼을 자신의 생활속에 더 가까이하면 기쁨과 행복, 건강과 장수는 떠나지 않을것입니다.

본사기자 연 옥

풍경화가 리인문

리인문(1745년-1821년)은 조선봉건왕조시기의 화가이다.

가난한 가정에서 태여난 그는 그림을 잘 그려 도화서 화원이 되였고 첨사벼슬을 받았다. 그는 실학사상과 김홍도, 신윤복 등의 영향을 받으며 창작활동을 벌리는 과정에 사대주의적이며 모방주의적인 창작태도에서 벗어나 사실주의적인 풍경화를 창작함으로써 18세기말-19세기초의 대표적인 풍경화가로 되였다.

그는 자기가 항상 대하고 보는 조국의 아름다운 산천경개에서 풍경화의 소재를 찾았고 그것을 인간생활과의 밀접한 련관속에서 훌륭히 그려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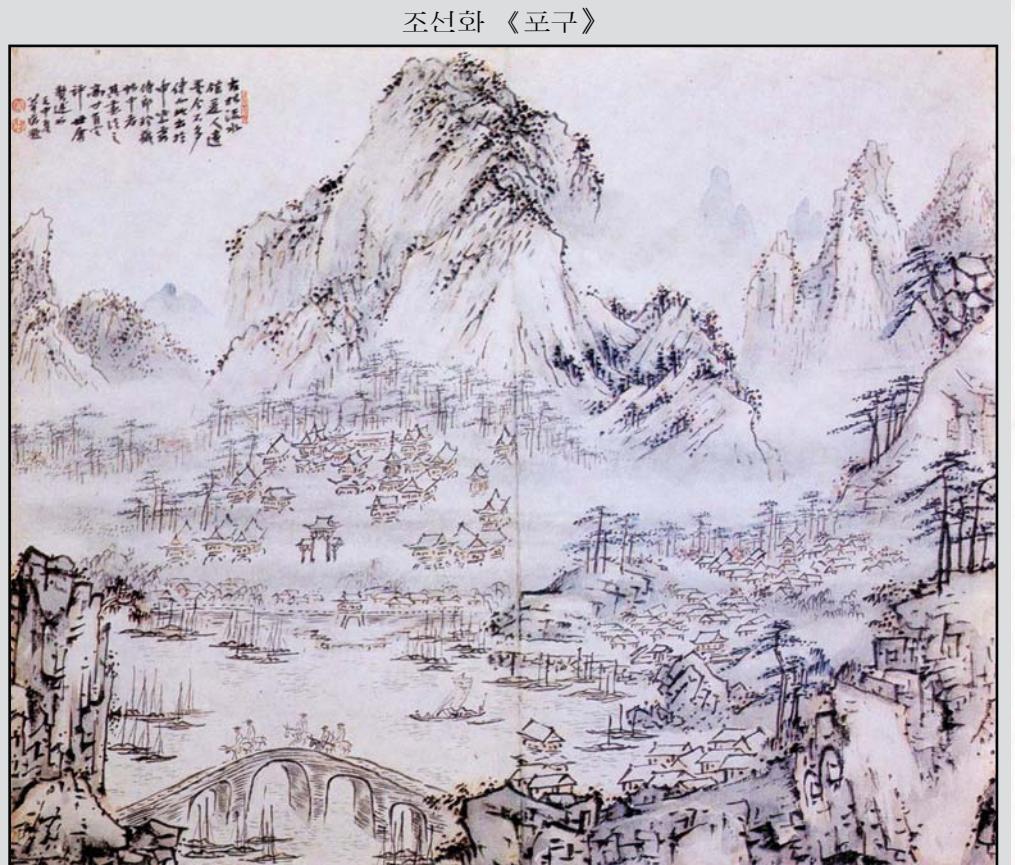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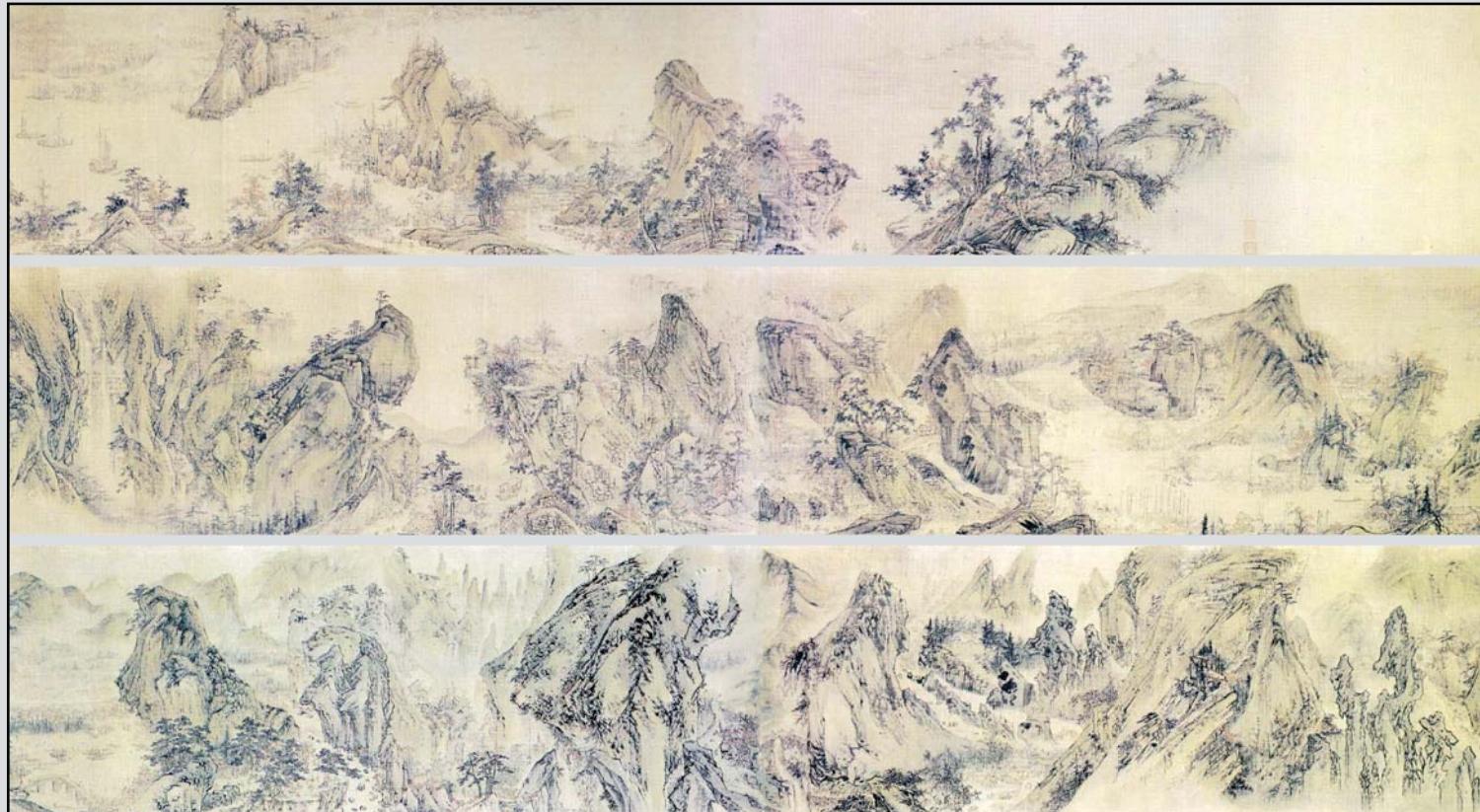
대표적인 작품은 《강산무진도(강산은 끝없어라)》, 《김매기》, 《사공》 등이다.

거대한 자연을 서사시적으로 전개한 대폭의 풍경화인 《강산무진도》는 첩첩히 쌓인 련봉들이 있고 맑은 물이 계곡을 감돌아 굽이쳐흐르며 물길을 따라 오솔길이 나있는 가운데 사람들의 생활이 보이며 번화한 강하구에 이르러서는 성곽과 고기배, 장사배들이 전개되여있어 18세기말 우리 나라의 사회경제생활형편을 한눈에 알수 있도록 형상되였다.

작품은 화가가 세련된 묘사력과 높은 구상력으로 현실을 진실하고 생동하게 형상한것으로 하여 사실주의풍경화로서의 걸작품의 하나로 되고있다.

삼복더위속에서 힘든 일에 시달리는 농민들과 나무그늘밑에서 그들을 감시하는 늙은 지주의 형상을 대조적으로 보여주는 《김매기》와 달뜨는 초저녁 강변의 쪽배에서 잠든 사공의 모습을 형상한 《사공》도 우수한 작품이다.

조선화 《사공》

조선화 《꽃과 나비》

이밖에도 《어촌》, 《여름은 다 가고》, 《강가에서》, 《꽃과 나비》 등 그의 작품 20여점이 조선미술박물관에 소장되여있다.

리인문은 창작에서 다양한 구도형식과 섬세하고 간결한 필치, 원근화법의 도입, 다채로운 색채활용 등으로 중세 말기의 조선화발전에 이바지하였다.

* * *

조선화 《강산무진도》의 일부

조선화 《포구》